

SMITHSONIAN INSTITUTION LIBR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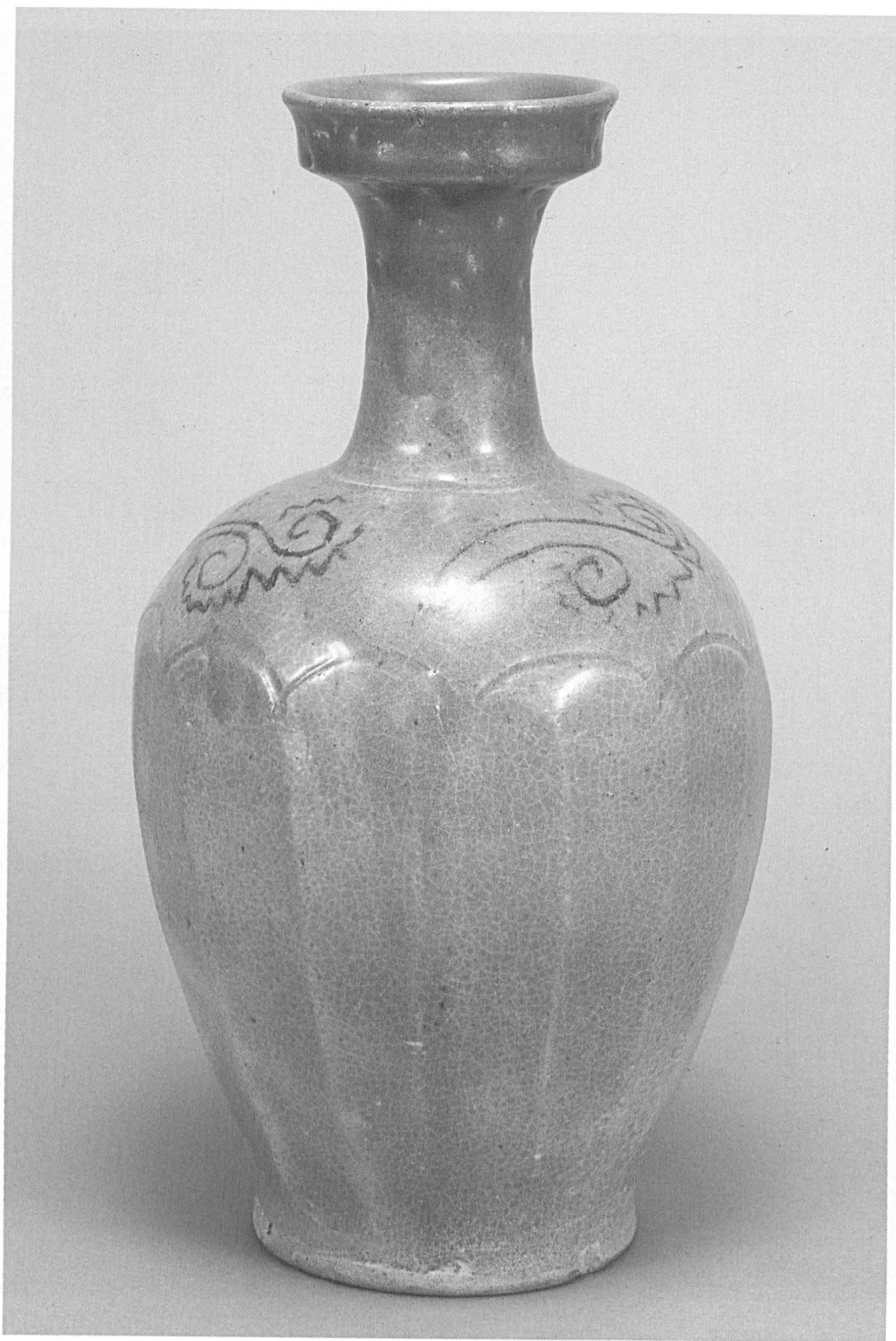


3 9088 01615 9899

Journal of Ho-Am Art Museum

Vol. 2

1997



원색도관 2. 靑磁面陽刻·象嵌唐草文盤口瓶
高麗 11世紀, 高28cm, 湖巖美術館 所藏



원색도판 3. 黄堡窑址出土 黑釉刻花填白彩瓷 注子

高麗陶磁의 象嵌技法 發生에 관한 一考察

— ‘原(proto)象嵌文’의 존재를 중심으로 —

金 載 悅

學藝研究室長・陶磁史

I. 머리말

II. ‘原象嵌文’의 예

1. 窯址출토 자료
2. 靑磁 面陽刻蓮瓣文・象嵌唐草文
盤口瓶
3. 기타 자료

III. 중국도자에 사용된 상감기법

1. 唐代 黃堡窯址의 黑釉刻畫填白彩磁
2. 磁州窯의 상감기법

IV. 靑磁面陽刻蓮瓣文・

象嵌唐草文盤口瓶의 검토

1. 기형적 특징
2. 문양적 특징

V. ‘原象嵌文’의 발생 및 제작시기에 관한 고찰

1. ‘原상감문’의 발생 및 중국
북방자기와의 관련성
2. ‘原상감문’의 제작시기

VI.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시대의 도자기에 장식된 많은 문양장식법 중에 상감기법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상감기법의 문양이 베풀어진 고려자기는 흔히 ‘상감청자’로 불리면서, 양적으로는 고려자기 전체를 거의 半分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세계도자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독특한 장식수법의 자기로 칭송받고 있다. 자기의 태토상에 이질토를 감입시켜 高溫에서 번조한 이 상감청자는 흙의 성질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제작공정상의 수고로움을 극복하는 기술과 정성이 요구되는, 당시로는 최상급의 자기라 할 수 있다.

일찍부터 한국의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의 하나로 주목받아온 고려의 상감청자[일부 白磁와 黑磁도 있다]를 두고, 여러 학자들이 이의 발생연원 및 발생시기에 대해 언급하여 왔다. 현재 남아 있는 매우 빈약한 유례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된 諸學說들은, 고려도자에 사용된 상감기법의 발생시기를 대체로 12세기 중의 前·中·後期の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다.¹⁾ 물론 여기서의 상감기법은 線 위주의 일반적인 흑백상감을 말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요지조사를 통해 始原的인 형태의 상감기법이 베풀어진 자료들이 발견되어 상감기법의 발생시기에 대해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鄭良謨 선생은, 상감이 일반화되는 처음 시기로서의 상감발생기는 12세기 전반으로 보면서도, “특수한 지역 또는 특정한 기형에 예외적 또는 우발적으로 상감이 시문된 예는 12세기초는 물론이고 11세기 또는 10세기에 도 가능할 수 있다. … 11세기로 추정되는 청자에 상감이 들어간 예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짧게 언급하고 있다.²⁾

본고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상감청자가 성립되기 이전에 존재한 고려초기의 상감문에 대한 자료집성과 그 성격에 대한 고찰이 목적이다. 그런데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늦어도 11세기에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자기에 베풀어진 일련의 상감문 중에는, 전형적인 상감자기와 기법이나 문양이 유사하여 초기적인 양상으로 쉽게 인정되는 것도 있지만,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초기상감문이라해도, 일반적인 성격의 상감문이 기물의 극히 일부에만 시문되거나 양각이나 음각문과 함께 베풀어지는 등, 말 그대로 초기적인 양상을 보여 단지 시기적인 차이만을 보이는 것이 있는 반

1) 상감문의 발생시기는 지금까지 상감문이 일반화되는 처음 시기를 기준으로 설정 되어 왔다. 12세기 전반설은 野守健·鄭良謨선생이, 중엽설은 姜敬淑선생이, 후반설은 尹龍二선생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清閑社, 1944, pp.25~26.

鄭良謨, 「靑磁象嵌發生의 側面的 考察」,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1, p.243.

姜敬淑, 『韓國陶磁史』, 一志社, 1989, p.193.

尹龍二, 「高麗陶磁의 變遷」, 『潤松文華』 31, 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6, pp.73-93.

최근의 상감발생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고찰로는, 方炳善, 『고려상감청자의 발생에 따른 상감 무늬의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1991.

2) 鄭良謨, 주1)의 책, p.71, 삽도9~11.

면에, 12세기 이후로 비정되는 전형적인 상감자기와는 기형·문양형태·시문수법 등이 차이가 있고 보다 古式的인 양상을 보이며, 이른 시기의 요지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일련의 상감문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이런 상감문들이 예외적이고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려자기의 상감문의 성립과 발전에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보다 시원적인 양상의 상감문에 대한 성격 규명이 고려상감자기의 발생연구에 작은 단서나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본고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보다 시원적이고 이질적인 성격의 상감문을 구분하기 위하여, ‘초기 상감문’이라는 말 대신에 ‘原(proto)상감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용어는 ‘原史’나 ‘原三國’ 등과 같이, ‘草創期の·數量이 매우 적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성격의 상감문이 얼마든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앞날을 위해 이 용어를 마련해 두고자 한다.

본고의 내용은 먼저, ‘原상감문’의 존재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이의 성격을 고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도자사에서 나타나는 상감문의 존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 신출자료 중에 고식의 특징적인 기형과 문양을 갖춘 ‘靑磁面陽刻·象嵌唐草文盤口瓶’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고자 하며, 끝으로 ‘原상감문’의 발생 및 중국 북방자기와의 관계, 제작시기에 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II. ‘原象嵌文’의 예

‘原상감문’이란 앞에서 밝힌 바 대로, 전형적인 상감자기에 비해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것 중에, 상감수법이 특이하거나 문양형태가 다른 것 또는 뚜렷이 초기청자요지에서 출토한 것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요지출토 자료들은 기존에 보고된 바도 있지만 한곳에 정리한다는 뜻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어 볼 예정이다.

1. 窯址출토자료

1) 龍仁郡 西里 고려백자요지 출토자료

京畿道 龍仁郡 二東面 西里 중덕마을에 위치하는 본 요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백자를 생산하였던 요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호암미술관에서 1984년·1987년·1988년의 3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소위 ‘先해무리굽완’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우리나라 자기발생의 연구에 표준적인 유적으로 인정되고 있다.³⁾

3) 湖巖美術館, 『龍仁西里高麗白磁窯』, 1987

金載悅,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考古美術』 177, 한국미술사학회, pp.5~7.

金載悅, 「龍仁初期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 『韓國磁器發生에 關한 諸問題』,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0, pp.45~53.

이중에 2편은 담청색의 유약에 견지하게 구워진 백자편으로, 각각 흑상감된 緋文이 환줄 돌아가 있음 뿐이다. 靚片으로 추정되는 1편은, 목의 일부가 남아 있고 그 아래 어깨부분에 환줄 돌아가며, 다른 1편은 기벽이 매우 두터운 구연부편이나 기형은 알 수 없으며, 구연적하에 흑상감선이 환줄 돌아가 있다. 다른 1편은 약간 軟質의 백자편으로 유색에 푸른기가 많으며 범열이 퍼져 있는데, 역시 靚片으로 추정된다. 두텁게 외반된 구연이

3점이 수습되었는데, 출토위치나 백자질로 보아 이 요지에서 해무리굴완류가 성행한 시기를 전후한 무렵에 제작된 것들이다.

② 기타 백자상감문 편들 (도판 1-②)

이런 흑지백상감문은 일견 靑磁鐵彩白象嵌文과 같은 문양효과를 내고 있지만, 바탕에 철사안포를 바르지 않고, 赭土를 감입하고 있어 시문방법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검은 바탕에 흰 상감문이 들어간 자기는 후술할 海南郡 珍山里요지에서도 발견되는데, 진산리에서는 철채된 바탕면에 白土泥를 붓으로 칠해 상감하는 또다른 상감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흑지백상감문은 일견 靑磁鐵彩白象嵌文과 같은 문양효과를 내고 있지만, 바탕에 철사안포를 바르지 않고, 赭土를 감입하고 있어 시문방법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검은 바탕에 흰 상감문이 들어간 자기는 후술할 海南郡 珍山里요지에서도 발견되는데, 진산리에서는 철채된 바탕면에 白土泥를 붓으로 칠해 상감하는 또다른 상감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흑지백상감문은 일견 靑磁鐵彩白象嵌文과 같은 문양효과를 내고 있지만, 바탕에 철사안포를 바르지 않고, 赭土를 감입하고 있어 시문방법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검은 바탕에 흰 상감문이 들어간 자기는 후술할 海南郡 珍山里요지에서도 발견되는데, 진산리에서는 철채된 바탕면에 白土泥를 붓으로 칠해 상감하는 또다른 상감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흑지백상감문은 일견 靑磁鐵彩白象嵌文과 같은 문양효과를 내고 있지만, 바탕에 철사안포를 바르지 않고, 赭土를 감입하고 있어 시문방법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검은 바탕에 흰 상감문이 들어간 자기는 후술할 海南郡 珍山里요지에서도 발견되는데, 진산리에서는 철채된 바탕면에 白土泥를 붓으로 칠해 상감하는 또다른 상감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흑지백상감문은 일견 靑磁鐵彩白象嵌文과 같은 문양효과를 내고 있지만, 바탕에 철사안포를 바르지 않고, 赭土를 감입하고 있어 시문방법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검은 바탕에 흰 상감문이 들어간 자기는 후술할 海南郡 珍山里요지에서도 발견되는데, 진산리에서는 철채된 바탕면에 白土泥를 붓으로 칠해 상감하는 또다른 상감법을 사용하고 있다.

① 黑地白象嵌唐草文 장고편 일관 (도판 1-①)

1987년과 1988년의 2차·3차 조사시에 발견된 상감편은 총 13점이었다. 이중 10편은 장고편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기물의 파편들이며, 3편은 백자에 선상감문이 들어간 것이다.

다.
양재리 청자요지군에서는 대첩·첩시·광구병 등의 기물에 고식의 특징적인 연판문이 배
풍어진 것이 많다. 이들 연판문들은 다소 거칠고 짙은 음각선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연판의
내부를 띠한 시문도구로 짙게 파내어 주름이 진 것 같이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런 연
판문들은 10~11세기에 유행한 이른 형식의 연판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채집된 청자상감편들 역시, 초기상감청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

은 흑상감면 위에는 자갈한 網狀水列이 퍼져 있어 마치 흑유를 씌운 것 같이 보인다.
만, 자토를 살짝 바른 듯이 撒入이 얹어서 거칠게 각은 관자국이 드러나 보일 정도이다. 넓
문양인 것으로 생각된다. 흑상감이 넓게 시문된 부분은 전면을 양게 깎아내고 상감하였지
체형태를 알 수 없으나, 縹象 縹된 부분이 연판문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역시 화판문계통의
장고의 통부분의 골격인 편이다. 胎는 1호 것과 유사하다. 흑상감만으로 된 문양은 전
② 5호요지 채집편 (도판 2-②)

르고 넓은 형태의 흑상감부분은 양게 감입되어 縹土를 살짝 바른 듯 하다.
양은 흑상감만으로 되어 있는데, 윤곽이나 내부의 선들은 비교적 짙게 흑상감되었지만, 문
상감문은 일부만 남아 문양형태가 확실치 않으나 연판문 계통의 花瓣文으로 보인다. 문
내고 대화트빚음눈을 받쳐 구웠는데, 번조시 동체의 무게에 돌려 안쪽으로 휘어져 있다.
청색의 투명유가 시유되고 내면은 無施釉의 노태상태이다. 마구리의 문부분의 유약을 훑어
장고의 마구리부분의 골격인 편이다. 태토는 사립이 섞여 약간 거친 편이며, 외면에는 녹
① 1호요지 채집편 (도판 2-①)

장고편이다.
으로 추정되는 초기 청자부들을 생산하였던 곳이다.⁴⁾ 발견된 청자상감편은 2점으로 모두
의 청자요지군의 1호와 5호 요지에서 상감편이 발견되었다. 이 청자요지군은 10~11세기경
1987년에 국립광주박물관이 행한 지표조사시에, 全南 咸平郡 孫佛面 良才里 장채동마를
(2) 咸平郡 良才里 청자요지 출토자료

어, 이 무렵에 이미 상감장식법에 대한 일정한 지식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는 일반적인 器種에 縹象 縹 기법이 이용하여 장식적인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시문하고 있
반적인 흑상감법이 사용되었으며, 흑상감은 다소 갈색조를 띠고 있다. 이 백자 상감편들에
받음하게 감입시킨 다음, 푸른기가 다소 있는 백자유를 씌워 번조한 것들이다. 이들에는 일
이들 상감편들은 백자의 태토면을 비교적 짙고 깨끗하게 파낸 다음, 흑색이 나는 縹土를
섞어 있으며 동체부는 彎曲을 이루는데, 片의 하단에 소위 羽狀文이 흑상감되어 있다.

(3) 長興郡 豊吉里 청자요지 출토 자료

全南 長興郡 龍山面 豊吉리에 위치하며, 1995년에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발견하였다.⁵⁾ 해무리굽완류가 출토하는 초기청자요지인데, 완은 내저원각이 없고 굽의 접지면폭이 0.7cm 정도로 좁은 편이다. 태토에 사립이 섞인 조질에 녹청색이나 녹갈색의 유약이 덮힌 종류와, 고운 태토에 유색이 올리브그린색인 종류가 혼재하고 있다.

이 요지에서 작은 청자상감문편이 1점 채집되었는데, 너무 小片이고 확실치 않아 보고서에는 실지 않았지만, 박물관측의 후의로 片을 실견할 수 있었다.

5cm가 채 안되는 靑磁小片으로 치밀질의 고운 태토에 광택이 좋은 녹청색의 유약이 시유되었으며, 유면에 약간 얼룩이 있고 미세한 병얼이 퍼져 있다. 이 편이 한 곳에 흑상감된 가는 선이 한줄 돌아가 있을 뿐인데, 흑상감선은 단면상으로 보아 분명 감입된 것이다. 워낙 소편이어서 기형이나 문양형태를 알 수 없지만, 초기청자요지에서 발견된 상감문 자료로서 중요하다. (도판 2-③)

(4) 海南郡 珍山里 녹청자요지 출토자료

진산리요지는 소위 '綠靑磁'를 생산하였던 대규모 요지군으로 1983년에 발견되어 史蹟 301호로 지정되었다. 全南 海南郡 山二面 珍山里일대에 100여기 이상의 요지가 해안을 따라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 요지군에서는 녹청자류와 함께 토기·흑유자기·철화청자들이 생산되었으며, 특히 철화나 백회화문이 장식된 장고 등의 자기편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⁶⁾ 또한 全南 莞島郡 藥山面 漁頭里 어두지섬 앞바다에서 인양된 3만여점의 녹청자류가 이곳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중요한 요지로 부각된 바 있다.⁷⁾ 1991년에는 목포대학교에서 진산리 17호 요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있었다.⁸⁾ 현재 이 요지군의 활동시기에 대해서는 10세기말~11세기전기로 보는 견해와, 11세기전반~12세기초로 추정하는 견해 등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⁹⁾

5) 국립광주박물관, 『전남지방도요지조사보고(IV)』, 1995

6) 金得豊, 「全南海南郡山二面珍山里 靑磁窯址調査報告」①~⑤, 『博物館新聞』 144~148호, 국립중앙박물관, 1983.

曹基正, 『綠靑磁小考』, 무등도요·토석도자문화연구소, 1987.

國立中央博物館·仁川直轄市, 『仁川景西洞 綠靑磁窯址』, 1990.

7) 文化財管理局, 『莞島海底遺物』, 1985.

8) 木浦大學校博物館, 『海南珍山里綠靑磁窯址』, 1992.

9) 진산리요지의 편년에 대해, 주8)의 책에서는 강진청자와 비교하여 10세기말 ~ 11세기 전기로 비정 하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주6)의 책에서는 11세기전반 ~ 12세기초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주7)의 책에서는 완도해저출토 자기류가 文宗年間(1047-1082)에 진산리요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彌勒寺址 발굴조사에 의하면 해무리굽청자와 녹청자계편이 공반출토되고 있어 녹청자의 개시년대가 11세기이전까지 올라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崔孟植, 「통일신라 줄 무늬 및 덧띠무늬토기병에 관한 소고」, 『文化財』, 文化財研究所, 1991.의 논문과 문화재연구소,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89. 참조)

진산리 녹청자요지군에서 출토한 자료 중에 상감문의 존재는 단 1편이 보고되어 있다. 曷基正선생이 자의로 명명한 진산리 60호 요지에서 채집된 것으로, 흑상감기법을 사용하여 方形文이 중첩된 일종의 雷文으로 추정되는 문양이 배풀어져 있다.(도판 3-①) 비록 소편이지만 이 상감문의 존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진사리요지에서 제작된 鐵彩白泥象嵌文[鐵彩剝地된 문양을 남기고 파낸 공간에 백토를 붓으로 칠하여 백상감의 효과를 낸 문양] 계통이 흑상감문으로 발전한 유력한 증거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즉 철채백니상감문계통이 상감청자 발달의 원조가 된다는 주장이다. 필자 역시 이들의 존재가 '原상감문'의 한 형태로 보여져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진산리요지군에서는 백토화문과 더불어 매우 다양한 철화청자류가 생산되었다. 이들 철화청자류는 일반적인 철화문 외에도, 시문수법상 매우 독특한 종류들이 있으며, 이중에 철채백니상감문류도 포함된다.¹¹⁾ 진사리요지에서 생산된 철화자기류 중에 고려 일반적인 철화자기와는 다른 독특한 시문기법을 보이는 자료들이 주6)의 『綠靑磁小考』에 간략히 실려있지만, 국립 광주 박물관의 후의로 필자가 직접 확인한 것들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① 鐵彩剝地陰刻文 長鼓片 (도판 3-②)

장고의 동체편으로 추정되는 最長 13cm의 큰 파편이다. 치밀질의 고운 태토로 기벽이 얇고 잘 구워졌으며, 태색은 옅은 회색을 띤다. 외면에는 철채박지음각수법으로 문양이 배풀어져 있고, 내면은 무시유의 노태상태로 세밀한 물레흔이 나 있다. 片의 외면에는 중간에 넓은 띠가 돌아가고 위 아래에 큼직한 花瓣과 葉文이 시문되었다. 문양은 먼저 전면에 얇게 鐵彩한 다음, 문양의 여백부분을 깊히 剝地하고, 다시 철채문양의 세부를 가는 시문도구로 철채면을 긁어내어 음각선으로 표현한 다음, 청자유를 얇게 씌워 구웠다. 철채부분은 거의 흑색을 띠며, 박지부분은 옅은 청자색을 보인다. 이 편에서 주목되는 것은 여백을 박지한 시문수법으로, 卍한 조각도로 태토면을 파내었으며 刀痕이 이리저리 남아 있다. 일반적

10) 曷基正, 주6)의 책, p. 30, 94.

11) 지표조사를 통해 채집된 다량의 철화청자류를 정리분석한 曷基正선생은 이를 아래와 같이 장식수법에 따라,

① 剝地手法 : 기물 위에 鐵扮彩裝으로 칠한 후 문양을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을 갈아내는 방법

② 鐵扮彩裝剝地(鐵剝地)陰白彩文, 또는 ③ 鐵剝地陰白彩嵌文 手法 : 박지수법과 같이 갈아낸 여백부분을 백토니로 칠하거나 더 두껍게 백상감법을 사용하여 흑백으로 대조를 시켜 철화문을 부각시키는 방법

④ 鐵扮彩裝白彩嵌文手法 : 철분채장을 하고 난 후 선 또는 면으로 음각문양을 만들고 파낸 자국에 백토니를 여러번 칠하여 매꾸어 넣는 방법

⑤ 鐵白堆花文手法 : 철백토니를 붓에 묻혀 점으로 찍거나 칠하여 거의 보조문양의 역할을 하는 수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曷基正, 주7)의 책, p.31, 32. 또 분장의 '분'자는 보다 넓은 의미로 '扮'자를 사용하며 이에 대한 설명은 같은 책 p.89. 주76) 참조.)

인 철화문자기는 태토면에 문양을 붓으로 그릴 뿐이어서, 이같이 여백을 박지한 것은 매우 이질적이다. 그리고 이런 박지법의 사용이 백토를 칠하여 감입장식하는 시문수법으로 나아가는 기초단계로 생각된다.¹²⁾

② 鐵彩剝地文片 (도판 3-③)

長 5cm의 소편이지만 문양형태로 보아 장고편으로 추정된다. 치밀질 태토이나 무시유된 내면이 다소 거칠게 성형되고 기벽은 두터운 편이다. 외면은 반이상이 넓은 띠문이 돌아가고 화관문의 잔형이 보인다. ①과 같이 철채를 한 후 여백을 박지하고 세부는 음각으로 처리한 다음 청자유를 얇게 씌웠다. 철채는 흑색에 가깝고, 박지부분은 연한 녹색색을 띤다.

③ 鐵彩白泥象嵌文片 (도판 3-④)

長 8cm. 장고편으로 추정된다. 치밀질 태토에 무시유 노태상태의 내면에는 세밀한 물레흔이 나있다. 기벽은 다소 두터운 편이다. 외면에는 草花文으로 보이는 문양이 장식되어 있는데 전면에 얇게 철채를 가한 후, 문양부분을 凹하게 파낸 다음, 홈안에 붓으로 白土泥를 발라 채워 넣었다. 붓을 여러번 칠한 듯 백토니가 두텁게 칠해진 부분도 있고 얇게 칠해진 부분도 있다. 특히 백토니가 두터운 부분은 백상감문과 다를바 없어 일견 鐵彩白象嵌文으로 보인다. 철채하여 백상감한 후, 거의 투명한 유약을 얇게 발라 구웠다. 철채는 흑색에 가까우며, 백토니상감된 부분에만 굵은 빙열이 퍼져 있고, 철채부분은 빙열이 없이 흑유같이 보인다.¹³⁾

④ 鐵彩剝地白泥象嵌文片 (삽도1, 도판 3-⑤)

長 7cm. 중간이 크게 휘어진 편으로 문양으로 보아 장고편으로 추정된다. 치밀질 태토로 단단하게 구워졌으며 태색은 옅은 회색이고 기벽은 다소 두터운 편이다. 외면에는 넓은 띠와 연관문대로 보이는 문양이 있으며, 내면은 무시유의 노태상태로 다소 거친 편이다. 외면 문양은 먼저 철채를 얇게 칠하고 문양의 여백부분을 깊게 박지한 다음, 박지부분에 다시 백토를 감입하고 청자유를 얇게 씌워 구웠다. 여백부분의 백토감입은 비교적 정교하게 베풀어져, 백상감문과 다를바 없으며, 철채는 鐵呈色을 띠어 갈색조가 많다. 백토면은 연한 청자색을 띤다. 이 문양편은 전체적으로 마치 逆象嵌文 같이 보여 매우 흥미롭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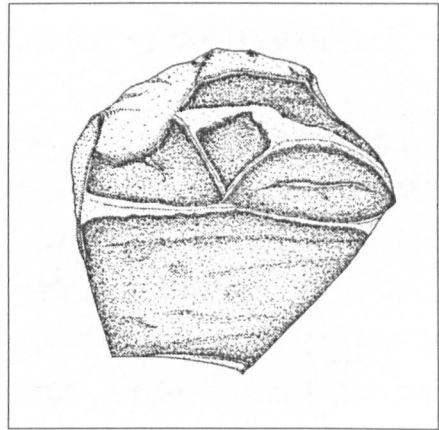
위의 자료 중에 특히 ③·④의 경우는 철채상감문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철채상감이 아니라 철채를 한 후 백상감 문양을 베풀 때, 백토를 붓으로 칠해 채운다는 점이 다르다.

12) 曷基正, 주)6의 책에는 '鐵扮彩裝剝地文綠青磁'로 부른다. 칼라사진 6의 ⑥, p.92 참조.

13) 曷基正, 주)6의 책에는 '鐵扮彩裝白彩嵌文綠青磁'라 하며, 칼라사진 6의 ⑦, p.93 참조.

14) 曷基正, 주)6의 책에는 '鐵扮彩裝剝地陰白彩嵌文綠青磁'라 하며, 칼라사진 6의 ⑨, p.93 참조.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의 보고문에서도 이런 류에 주목하여 “철화청자에서는 철채 후에 가는 음각선으로 박지하거나 넓은 면을 박지한 다음 白泥를 여러번 칠하여 백상감에 가까운 효과를 내는 시문방법이 있으며.....”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⁵⁾ 또한 진산리 17호요지의 발굴조사 보고서 중에도 장고편 중의 청자철채초화문편에 대한 설명에서 “철채후 굵어내어 백토니를 발라 초화문을 시문하였는데 백토니를 두텁게 발라 상감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¹⁶⁾



삽도1. 도판 3-⑤의 펼친 그림

이와같이 기물의 바탕면 위에 먼저 철채를 한 다음 다시 문양부분을 파내고 백토를 채워 넣는 철채상감문은, 크게 보아 앞의 용인 서리요지출토의 장고편에 보이는 상감문과 일견 매우 유사하다. 다만 진산리에서는 赭土 대신 철사안료를 사용하여 黑地를 만들고, 백토감입시에는 붓으로 백토니를 여러번 칠하여 凹한 부분을 메꾸어 백상감에 유사한 효과를 내었지만, 겉보기에는 둘다 모두 흑색바탕에 백상감문이 배풀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붓으로 백토니를 칠해 감입하는 철채백토니상감문자기는 12세기 이후에도 제작되어 상감청자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산리요지에서 제작된 이러한 상감문이, 17호요지 발굴조사보고서에서 추정된 연대관에 근거해, 이미 10세기경에 나타나는 시원적인 형태의 상감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녹청자와 함께 생산된 이런 류의 존재를 광의의 ‘原상감문’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며, 이들이 어쩌면 고려상감청자의 발생 및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시원적인 ‘原상감법’과 똑같은 장식수법이, 중국에서도 일찌기 唐代 요지에서 제작된 바가 있음이 최근에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지방가마에서 우연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되던 이런 상감법이 중국에서, 그것도 이미 唐代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뒤에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중국북방 陝西省의 唐代의 ‘黃堡窯址’ 에서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黑釉刻花填白彩磁’들이 최근에 발굴조사되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 상감청자의 기원문제는 물론이고, 진산리요지 전체의 연대관, 나아가 녹청자와 관련되는 고려초기 도자사연구 전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5) 國立中央博物館, 주6)의 책, p.135.

16) 木浦大學校博物館, 주8)의 책, p.45, 46.

2. 靑磁面陽刻蓮瓣文·象嵌唐草文盤口瓶 (삽도2, 원색도판2)

호암미술관에서 최근에 입수된 자료 중에 뚜렷한 초기상감청자의 유례가 있어 소개한다. 전형적인 古式의 기형과 문양으로 인정되는 청자에 역시 고식의 당초문이 象嵌되어 있어 일단 ‘原상감문’의 예로 분류하였다.

이 병은 큼직한 盤口形의 口部를 가진 속칭 ‘머슴병’으로 불리는 반구병이다. 구부는 곧게 올라가다 끝에서 약간 벌어지며, 구부의 하단이 확실하게 꺾이면서 안으로 오므라들어 아래로 길게 내려가 長頸部를 이룬다. 경부의 하단이 다시 살짝 벌어지면서 어깨와 연결되지만, 목과 어깨의 경계부위에 얇은 돌대가 돌아가 있다. 둥그스름하게 부풀린 어깨는 별다른 꺾임없이 아래로 이어지면서 점차 좁아들어 길쭉한 동체를 이루며, 동체의 하단에서 다시 약간 벌어지면서 끝난다. 낮게 외반된 굽은 안쪽을 깊고 둥글게 깎아 굽다리를 만들었는데, 접지면의 폭이 좁고 각음새가 단정하다.

동체에는 어깨가 끝난 지점부터 시작하여 굽 바로 위에까지 넓은 조각칼로 모각이를 하듯이 위 아래로 길게 弧線을 그리며 花瓣狀으로 깎아내었으며, 모각이된 윗면에 가는 음각 선으로 호선을 연결시켜 동체 전체를 연판문으로 장식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런 특징적인 연판문을 본고에서는 면양각연판문이라 부르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드럽게 곡면을 이룬 어깨 부위에는 흑상감기법으로 간략한 당초문을 3곳에 배치하였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淡綠色의 청자유이며, 유면에 다소 얼룩이 있고 가는 빙열이 퍼져 있다. 굽은 접지면의 유를 훑어내고 흙모래를 받쳐 번조하였으나 흔적이 거의 없어졌으며, 굽 안바닥은 유가 덜 녹아 허영게 묻어 있으나 삭아서 반이상 탈락되어 적갈색의 노태상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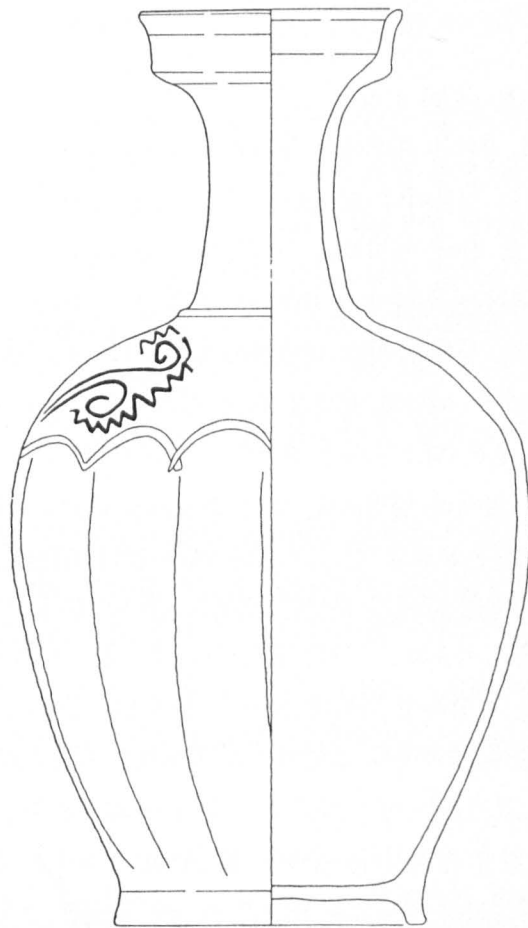
이 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상감문이다. 통상 고려전기의 특징적인 기형으로 보고 있는 전형적인 반구병에는, 이것과 같이 동체에는 모각이 수법으로 된 면양각연판문이 있고, 어깨에는 음각으로 된 당초문이 배풀어진 예는 더러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감문이 배풀어진 예는 필자로서는 처음 보는 것이다. 상감문은 선상감으로 간략하지만 능숙하게 시문하였으며, 凹부분이 얇고 흑상감의 색은 약간 갈색조를 띤다. 이 작품에 대한 검토는 다시 뒤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 기타·자료들

① 소장처 불명의 ‘靑磁黑象嵌面取水注’ (삽도3, 도판 4-①)

이 작품은 1941년 11월에 서울에서 열린 경매도록에 실린 개인 소장품으로 지금은 그 소재를 알 수 없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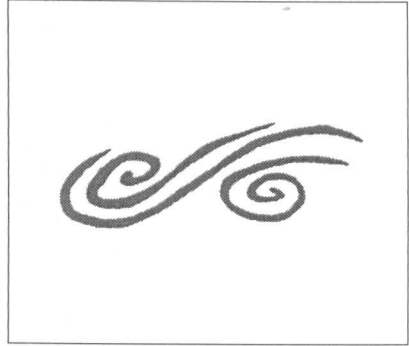
17) 京城美術俱樂部, 『府內某家所藏品 書畫高麗李朝陶磁賣立目錄』, 1941년 11월.



1 5CM

삼도 2. 靑磁面陽刻·象嵌唐草文盤口瓶의 도면

이 도록의 28번으로 실린 흑백사진은 희미하긴하지만, 전체적인 특징은 알아볼 수 있다. 반구병형태의 동체에 多角形의 注口와 역U자형의 손잡이가 달린 注子로 연판문이 조각장식된 뚜껑을 갖추고 있다. 동체의 하부는 위의 호암미술관 소장 반구병과 같이 일본식 용어로는 ‘面取’, 우리는 ‘모각이’로 부르는 장식수법으로 소위 면양각연판문을 베풀었으며, 어깨부위에는 흑상감으로 간략한 당초문을 시문하고 있다.



삽도 3. 靑磁黑象嵌面取水注의 唐草文

소장처 불명의 이 注子는 釉·胎나 변조수법등을 알 수 없어 유감이나, 기형이나 특히 고식의 특징적인 연판문을 볼 때, 10~11세기의 작품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동체의 어깨에 흑상감으로 시문된 당초문은 위에 소개한 호암미술관 소장의 반구병과 시문위치·시문수법·문양형태까지 거의 동일하여, 이 무렵에 흑상감 수법이 注子에 이르기까지 이외로 많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생각된다.

② 靑磁象嵌雷文盞類 (도판 4-②)

고려자기의 盞類 중에 구연부 일부에만 국한되어 음각이나 상감으로 雷文帶가 장식된 것들이 많이 있다. 현존하는 실물이나 요지조사 채집편들을 보면 釉·胎나 굽형태 등이 다분히 초기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일찍부터 상감청자의 초기자료로 언급되어 왔다. 본고에서 다루는 ‘原상감문’의 부류에는 속하지 않지만, 참고적으로 그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잔의 기형은 동체의 상부가 약간 내만하여 넓은 구부를 이루고 동체의 아래가 급히 오무라들어 작은 굽을 이룬 아담한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런 잔류에는 외면의 口緣直下에 음각이나 흑상감으로 좁은 당초문대만 간략히 장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잔류에서 주목되는 것은 특히 굽처리 방법으로, 굽의 접지면을 비교적 예리하게 수평으로 깎고, 유를 훑어낸 다음 내화토나 모래를 받치고 구운 예가 많다. 일반적으로 상감문이 있는 碗이나 盞類등의 소형기물들은 12세기 부터는 대체로 굽다리를 둥글고 두툼하게 깎고 유를 접지면까지 완전히 통채로 시유하고 규사눈을 받쳐 굽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굽의 접지면을 편평하게 깎아내고 유를 훑어내는 굽처리 방법은 중국에서는, 특히 11세기 ‘耀州窯’ 계통의 청자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요주요청자의 碗類등의 굽처리를 보면 굽의 접지면을 마치 대패로 민듯이 예리하게 수평으로 깎아서 치밀한 적갈색의 露胎를 이루는 것이 상례이다. 이렇게 접지면을 수평으로 깎아 노태시키는 굽각이 수법은, 요주요등의 북방청자의 영향으로 12세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¹⁸⁾

18) 최근 필자는 중국의 北京大學校 考古系에서 1996년에 발굴조사한 臨汝窯출토품을 실견하는 기회가 있었다. 임여요는 주지하다시피 북방청자요지로 耀州窯의 영향으로 생겨나 대체로 北宋中期에 민간청자를 주로 생산했던 요지이다. 이번 발굴품들은 북송중기의 것이 대부분이고

III. 중국도자에 사용된 상감기법

한국도자사의 전개과정에 중국도자의 영향이 많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기 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이어서 10~11세기 고려도자의 발달에 중국 남북 각지의 여러 요의 영향이 컸었던 점도 인정되고 있다. 사실 고려도자기는 발생과 발전과정에 중국도자에 힘입은 바가 컸으며, 이를 토대로 유명한 비색청자등 고려 특유의 수준높은 자기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고려도자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특별히 10~11세기에 중국도자의 영향이 다방면으로 있었음이 인정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물밑듯이 들어온 중국도자의 영향을 어떻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고려적으로 승화시켜나갔는가 하는 점에 대한 연구라고 필자는 평소 생각해왔다. 왜냐하면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적 역량을 가장 잘 응변해 주고 있는 고려청자의 성격규명을 통해 우리 문화의 근원적인 특질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외래문물에 대한 선택적 수용과 창조적 변용의 특성이 이 고려의 10~11세기 도자기의 발전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문화의 특질을 규명하는데 매우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 필자의 평소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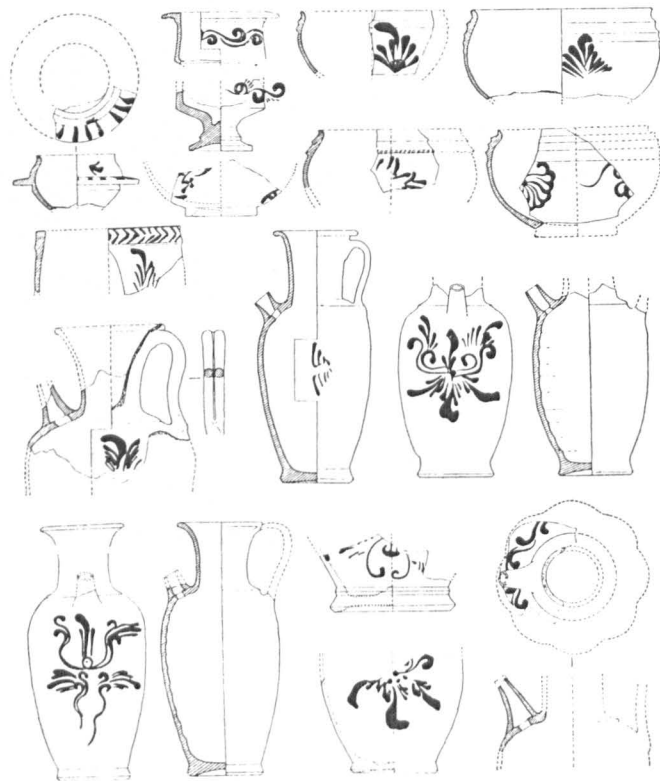
본고에서도 우리 자기의 초창기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중국도자를 통한 선진기술의 수용이라는 면에 유의하여, 중국측 자료를 검토해 가는 과정 중에, 의외에도 상감기법이 중국도자에서도 희미하게나마 존재하며, 이미 唐代부터 시원적인 형태의 상감기법이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도자사에서 상감기법이 사용된 예는, 唐代의 黃堡窯址와 北宋代의 磁州窯등 주로 북방지역에서 보이고 있다.

1. 唐代 黃堡窯址의 黑釉刻畫填白彩磁 (삼도4·5, 원색도판3, 도판5)

황보요지는 섬서성 銅川市 서남의 耀縣 黃堡鎮에 위치하며, 唐·五代부터 耀州에 속하여 흔히 ‘耀州窯’라 불리고 있다. 이 요지에서는 唐·五代·宋·金·元등 각 시대의 문화층이 발견되는데, 당과 오대 것은 ‘황보요지’라 부르고 송대 이후는 ‘요주요지’라 부르고 있다. 1958년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어 1973년과, 특히 1984년~1991년에 대규모의 발굴조사가 있었으며 최근에 『唐代黃堡窯址』라는 보고서가 출간되었다.¹⁹⁾

기대했던 汝官窯청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형·문양·유색등은 요주요와 거의 동일하였다. 특히 유색은 대체로 북방청자류의 전형적인 암록색이나 약간 갈색조를 머금은 청녹색이었으나, 胎色은 전부 회청색계통이어서 산화변조가 아닌 분명한 환원변조로 된 청자였다. 굽다리는 요주요의 이무렵 성형법과 동일하게 굽을 통체시유한 다음 접지면을 대패로 민 듯이 반듯하게 깎아 露胎로 만든 다음, 굵은 모래받침을 받쳐 구웠다. 漏頭狀갑발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경사진 도지미도 많이 출토되어 크게 흥미로웠다. 경사진 도지미는 평면상으로는 고려 녹청자요지 것과 같으나 다만 두터운 쪽의 가운데를 우묵하게 파내어 단면을 齒牙狀으로 만든 점이 달랐다.

19) 陝西省考古研究所, 『唐代黃堡窯址』上·下, 文物出版社, 1992, 北京.



삼도 4. 黄堡窯址 黑釉刻花填白彩磁의 기형 각종



삼도 5. 黄堡窯址 黑釉刻花填白彩磁의 문양 각종

이요지에서는 당대의 三彩器·靑磁·白磁·黃磁·黑釉磁·黑釉刻花填白彩磁·花釉磁·白釉綠彩磁·靑釉白彩磁·素胎黑花磁 등의 다양한 자기류들이 생산되었다. 이중에 청유백채자와 소태흑화자는 고려자기에서 일찍부터 나타나는 백퇴화나 칠화기법으로 문양을 베풀고 있어 주목되며, 특히 최근의 발굴조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黑釉刻花填白彩磁’의 존재가 가장 흥미를 끈다. 바로 이 종류의 자기에 일종의 시원적인 상감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실린 ‘黑釉刻花填白彩磁’의 「장식수법과 문양」에 대한 설명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黑釉刻花填白彩磁의 제작은, 성형한 위에 유약을 바른 胎體의 표면에 刻花[음각의 중국식 표현] 하는데, 각화시에 끝이 예리한 조각도를 이용해 매우 깊게 판 다음, 毛筆을 이용해 白彩의 濃汁을 담뱃 문혀 각된 문양내에 칠해 채운다. 백채즙이 매우 농하기 때문에, 소성 중에 유동이 없으며, 소성후에 흑백이 분명하여, 문양이 뚜렷해진다. ‘黑釉刻花填白彩’의 문양은 비교적 간단하여, 帶狀文·唐草文·茱花文[가지가 많은 초화문]·折枝文 등이 있다. 그중 茱花文이 가장 많고, 기물의 가장 두드러진 부위에 장식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黑釉刻花填白彩磁에 대한 「小結」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황보요지 출토의 黑釉刻花填白彩磁器에는 食器·茶器·酒具·조명용등잔들이 있으나 기종은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물상의 유층이 두텁고 유색은 칠흑같고 광택이 있다. 이런 칠흑의 흑유상에 다시 刻花填白彩로 문양을 장식하여, 흑백이 분명하여 대비가 강렬하고 장식성이 극히 강하다. 이런 장식수법은 황보요의 도공들의 대담한 시도이며 창조로서, 이는 흑유자 單色의 국면을 타파하고, 극도로 흑유자의 장식예술을 풍부하게 하여, 흑유자의 장식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²⁰⁾

상감기법이란, 두 말할 것 없이, 금속·나무·흙 등의 표면에 나타내고자 하는 문양을 칼로 파거나 도장을 찍어서 凹한 홈을 만들고 그 속에 다른 물질을 감입하여 문양을 나타내는 장식수법이다. 따라서 위의 ‘黑釉刻花填白彩磁’의 경우, 일단 문양부위를 조각도로 파낸 다음, 붓을 이용해 백채즙을 칠해 메꾸었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상감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붓을 이용해 백토를 채웠다는 것이 전형적인 상감법과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감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이 황보요지의 白堆花·鐵畫·刻花填白彩 등의 장식수법으로 시문된 문양에, 당초문이나 화훼문·초엽문 등이 많이 보이고 있어, 문양의 소재면에서도 고려자기의 칠화·퇴화의 문양과 유사성이 많아 크게 주목된다.(도판 6)

특히 황보요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곧이어 송대에는 ‘요주요’로 불리면서, 독특한 유색과 문양장식을 가진 소위 북방청자의 대표적인 요지가 되면서, ‘臨汝窯’ 등의 기타 북방청자요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 이 송대의 요주요는 처음에는 남방의 월주요의 영향을 받아 碗類에 부조풍의 연판문이나 간단한 초화문을 음각으로 장식하는등, 越州窯의 장식적 특징을 따르고 있어 ‘越器’란 별칭을 얻기도 하였다. 이어 11세기에는 크게 발전하여 印花文[문양을

20) 陝西省考古研究所, 주16)의 上권, pp.267-272.

새긴 도장을 찍어 양각문으로 나타낸 것으로 고려자기의 陽印刻文과 같다. 이 출현·성행하고, 초기의 음각문은 더욱 발전·성숙하여 요주요의 독특한 면모를 갖추게 된다.²¹⁾

이들 요주요의 11세기에 제작된 碗類들을 보면, 口部の 끝이 살짝 외반하는 기형적 특징이나, 복잡한 당초문 계통이 베풀어진 양각인화문의 수법과 문양형태, 굽부분을 전체 시유한 다음 접지면을 대패로 민듯이 반듯하게 깎아 노태를 이루게 한 굽처리방법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런 요주요의 특징은 고려자기의 11세기의 특징적인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

현재까지의 고려도자사 연구의 일반적인 성과로 볼 때, 11세기무렵에 일어나는 고려자기의 발전과정에 이 중국의 북방청자요지인 요주요의 영향이 많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이로 볼때, 요주요의 당대 요지인 ‘황보요지’에서 나타나는 상감·철화·퇴화 등의 문양장식수법도 일찍부터 고려자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아직 요주요의 최근에 조사된 오대·북송의 양상에 관한 보고서가 없어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요주요와의 관계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크다고 믿어진다.

2. 磁州窯의 상감기법

중국 宋代의 최대의 민간요로 유명한 자주요는, 河北省·河南省·山西省에 걸쳐 대규모의 窯業體系를 형성하였다. 자주요의 중심요지는 하북성 磁縣 觀臺鎮에 위치하며, 唐代 長沙窯등의 南北民窯의 특징을 계승하여 자기의 계통이 복잡한 편이나 대체로 북송에서 시작하여 元代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주요에서는 白釉·黑釉 외에도 白釉劃花·白釉剔花·白釉綠斑·白釉褐斑·白釉釉下黑彩·白釉釉下褐彩·白釉釉下黑彩劃花·白釉釉下褐彩劃花·綠釉釉下黑彩·白釉紅綠彩·低溫鉛釉三彩등 12종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자기를 생산하였다.²²⁾

일찍부터 고려자기의 철화문과 분청사기의 박지문등과 관련하여 한국도자사 연구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던 자주요에 대한 개설서가 최근 일본에서 출간되었다.²³⁾ 이 책 속에 자주요의 상감문에 대한 언급이 여러 곳 보인다.

10세기후반~11세기초로 추정되는 ‘白搔落し象嵌唐草文長頸瓶’에 대해, “태토에 문양을 線彫한 후, 白化粧하여 문양부분만 백화장을 깎아내어 상감문을 나타내고 …”라고 설명하고 있다.(도판 7-①) 또, 10세기말~11세기초로 추정되는 ‘白搔落し唐草文枕’의 설명에서는, “如意頭形枕의 윗면의 모란문을 묘사한 菱形의 주위는, 白地를 긁어내어 線彫의 문양에 백토를 상감하고 있다.”고 하였다.(도판 7-②)

이어서 「技術과 意匠」의 편의 ‘⑦象嵌文’의 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백화장을 긁어낸 바탕 부분에 鐵繪具를 상감한 것이 드물게 있다. 또한 크리브렌드미술관소장의 長頸瓶(도판 7-①)에는, 먼저 문양을 素地에 線彫한 후 백화장하고 문양있는 동체

21) 馮先銘 등, 『中國陶瓷史』, 文物出版社, 1982, pp.251-255.

22) 馮先銘 등, 주18)의 책, pp.239-247.

23) 長谷部樂爾, 『磁州窯』中國の陶磁⑦, 平凡社, 1996.

의 일부만 백화장을 소락시켜, 회색바탕에 백선문양을 나타내고 투명유를 발라 구운, 진귀한 수법이 행해져 있다. 이것은 일종의 백토상감이다. 그러나 자주요에서는 고려청자 같은 상감은 발달하지 않았다. 백소락 중에, 때때로 흑상감 같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는 철분이 많은 素地가 들여다 보이는 예이다.(책, 도3) 이중에는 백화장 전에 얇게 赤土를 칠한 것도 보인다. 대체로 대량제작을 원칙으로 하는 민요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상감과 같은 기술은 육성되기 어려웠던 것 같다.”²⁴⁾

이와 같이 磁州窯에서는 10세기 후반~11세기초에 이미 상감문이 소량이나마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가는 선상감으로 당초문대나 雲唐草文을 시문하였는데, 상감수법이 상당히 세련되어 있다. 그리고 10~11세기초 무렵에 자주요에서는 일종의 음각이나 박지수법으로 간략한 당초문이나 부조풍의 연판문대를 시문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IV. 靑磁面陽刻·象嵌唐草文盤口瓶에 대한 고찰

신자료로 소개한 호암미술관 소장의 ‘상감당초문반구병’은 우선 기형과 연판문이 古式으로, 고려 11세기무렵에 성행한 특징적인 형식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 반구병의 형식과 고식 연판문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거의 없어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자 하며, 아울러 본 작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상감 당초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기형적 특징

① 盤口瓶의 성격

盤形의 넓은 口部와 長頸를 특징으로 하는 반구병은 廣口瓶, 또는 廣口長頸瓶등으로 불리며, 골동계에서는 흔히 ‘머슴병’·‘담사리병’으로 부르고 있다. 속명에서 보듯이 이 반구병은 完形으로 유존하는 예가 매우 많지만, 기형·釉胎·문양등이 12세기의 비색청자류에 비해 품격이 떨어진다고 하여 일반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존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 병은 일반인의 무덤에 부장하기 위해 특별한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반구병의 최초의 형태는 중국의 漢代에 성행한 ‘鍾’이란 기물로 보인다. 반구·장경에 둥근 동체와 높은 굽다리가 달리거나 평저인 기형의 ‘鍾’은 古銅器의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突大·鬼面·둥근 고리등의 금속기의 특징적인 장식이 나타나며, 갈유·녹유·회유도기로 만들어졌다. 이 ‘鍾’은 4세기경의 東晉시기에 평저로 되면서 4耳壺로 변하며, 이어 南北朝시대에는 古越磁에서 반구·장경·평저의 동체에 鷄頭와 손잡이가 달린 天鷄壺 형태로 크게

24) 長谷部樂爾, 주21)의 책, p.98.

유행한다. 이 반구병의 기본형은 隋·唐代에 와서는 瓶形 보다는 雙龍耳瓶이라 하여 그리스의 ‘양포라’를 닮은 기물의 동체로 즐겨 이용된다. 이 쌍용이병은 장경부에 돌대가 돌아가고 龍耳에 단추장식이 붙는 등, 금속기를 본따고 있어 이 기형의 儀器的인 성격을 말해 준다.

그러나 唐代의 월주요청자에서는 반구병류가 별반 보이지 않지만, 앞서 소개한 황보요지에서는 고려전기의 반구병과 흡사한 반구병류가 생산되었다. 이 황보요지의 晚唐시기에 나오는 반구병부터 평저가 아니라 동체 아래에 낮게 외반되는 굽이 달린 것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五代가 되면 월주요청자에서도 반구병이 보이며, 定窯의 백자에서도 동체가 풍만하고 口部가 크게 과장된 형태의 반구병이 나온다. 이무렵 10~11세기전기의 자주요에서도 반구병이 제작되지만, 반구가 거의 커다란 깔대기 모양으로 변해 있다. 11세기 이후의 중국도자기에서 반구병의 형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도판 8)

우리나라에서의 반구병은, 盤形의 口部형태가 삼국시대 토기의 臺附長頸壺類등에 나타나며, 이후 통일신라 인화문토기의 장경병류나 후기의 廣口扁瓶등에 보인다. 특히 통일신라 토기중에 雁鴨池출토 인화문장경병(도판 9-①)과 울릉도 天府洞출토 장경병은, 반구·장경에 외반굽다리까지 있어 청자반구병과 동일한 기형을 이루고 있다. 靈巖 鳩林里 토기요지에서도 반구가 있으나 평저의 4각편병이 주로 이며, 保寧 眞竹里 토기요지에서도 반구는 많으나 동체가 역시 평저의 4면편병이 많고 간혹 반구·장경에 굽다리 있는 것이 있지만 동체가 낮은 타원형이어서 청자반구병과는 차이가 있다.²⁵⁾

고려전기의 청자반구병에는 여기서 다루고자하는 형식 외에도, 경사진 어깨가 모나게 꺾이면서 하복부가 팽만하여 筒形에 가깝고 높고 넓은 굽다리가 달린, 명확히 동시기의 청동기를 본딴 종류도 있으며, 반구지만 목이 짧고 동체가 원형에 가깝고 평저여서 통통한 느낌을 주는 형태도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도판 9-②③)

盤口·長頸에 長橢圓形의 길쭉한 동체를 가진 반구병은 이 기종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반구의 모양이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어깨가 부드러운 곡면이거나 살짝 꺾인 것등이 있지만, 이 차이는 현재로서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제작수법상 頸部와 胴體를 접합시킨 것과, 그대로 이어진 것의 두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 반구병의 문양장식을 보면, 무문의 것이 많지만, 이 병 처럼 면양각으로 연판문을 장식한 소위 ‘치마병’ 스타일이 많아, 외형상 크게 무문반구병과 ‘치마병’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외에도 철화기법으로 초화문계통의 주문양을 장식한 것도 많다. 그러나 음각문의 경우는 주문양으로 베푼 것은 드물고 보통 어깨 등에 종속문양으로 간략한 당초문이나 초화문을 베푼 예가 더러 보인다. 양각문이 장식된 것은 보이지 않는다.(도판 9-④~⑥)

이런 반구병의 형태가 고려청자요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강진청자요지의 경우, 정확한 기형은 알 수 없지만, 盤口가 달린 頸部片이 발견되는 요지로는, 龍雲里의 9호·22호·

25)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靈巖鳩林里土器窯址發掘調査』, 1988, p.98.

韓裕眞, 『統一新羅의 硬質陶器』,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1993.

28호·43호·50호·53호·63호, 桂栗里의 36호·55호, 三興里 3호요지 등이 있다.²⁶⁾ 용운리 53호요지에서는 ‘치마병’편이 보이며, 용운리 28호·50호요지에서는 고식의 연판문이 공반되고 있다. 그리고 발굴조사된 바 있는 용운리 9호요지 출토의 반구병의 경우, 어깨에 이음새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하여 흥미롭다.²⁷⁾ 강진청자요지 외에 앞서 소개한 良才里청자요지군에서 고식의 연판문과 함께 반구병편이 발견되며, 全南 靈光郡 鹽山面 梧桐里 초기청자요지에서도 전형적인 ‘치마병’이 보인다.²⁸⁾

반구병은 무어라해도 녹청자를 생산하였던 진산리와 仁川 景西洞요지에서 다량 생산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서동의 경우는 목과 어깨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과 뚜렷한 이음새가 있는 것의 두가지가 혼재하고 있다.²⁹⁾ 진산리요지군에서는 반구병의 여러 형식이 존재하며, ‘치마병’도 많이 보이지만, 이곳의 반구병은 모두 목과 어깨부분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³⁰⁾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반구병류는 매우 많은 수량이 유존하고 있으나, 거의 출토지가 불명이다. 반구병의 고려고분 출토례를 보면, 1933년에 京畿道 楊平郡 梅月리고분에서 鐵彩白堆文枕·元豐通寶(1078-1084년)와 함께 출토한 적이 있다.³¹⁾ 근래에 京畿道 高陽市 一山洞 터부골 고려묘의 발굴조사에서 반구가 결실된 녹청자병이 청자양각모란문대접과 공반출토된 예가 있으며³²⁾, 忠北 忠州市 단월동 고려고분 발굴조사에서는 대체로 11세기에 축조된 석곽묘와 토광묘에서 청자뇌문잔·탁잔·양각모란문대접·음각앵무문대접·과형주자·철화초문매병·토기매병등과 함께 철화초문이 장식된 반구병이 여러점 나온 바 있다.³³⁾ 京畿道 龍仁郡 遠三面 佐恒里의 고려고분 발굴조사에서도 유면에 얼룩이 심한 전형적인 녹청자반구병이 출토되었다.³⁴⁾ 특히 8호묘에서는 고식의 녹청자매병과 강진계청자로 보이는 양질의 양인각연화문화형접시와 백자대접등이 공반출토되었다. 이 중 백자류는 인근의 용인군 서리요지의 最上層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 반구병의 연대추정에 도움을 준다.

② 盤口瓶의 祖型和 제작시기

다음으로 이 반구병의 祖型和 제작시기의 문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반구병의 조형적 특징은 각진 盤口의 모양이나 頸部和 胴體 사이에 흔히 突帶文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중국의 경우에서도 본 바 같이 처음에는 銅器를 모방하여 만든 것

26) 海剛陶磁美術館·康津郡, 『康津의 靑磁窯址』, 1992.

27) 용운리 9호요지 반구병은 어깨에 이음새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하면서 진산리와 경서동 녹청자요지에서 출토하는 반구병은 어깨에 이음새가 없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용운리 것을 보다 이른 형식으로 보고, 녹청자반구병류의 제작시기를 11세기 중·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발표된 바 있다. (尹龍二, 주7)의 책, p.68)

28) 국립광주박물관, 주4)의 책, pp.85-88.

29) 국립중앙박물관, 주6)의 책, p.42.

30) 曺基正, 주6)의 책, p.82.

31) 野守健, 주1)의 책, p.12.

32) 漢陽大學校·京畿道, 『高陽中山地區文化遺蹟』, 1993, p.278.

33) 충주박물관, 『충주단월동고려묘발굴조사보고서』, 1992.

34) 明知大學校博物館, 『龍仁佐恒里高麗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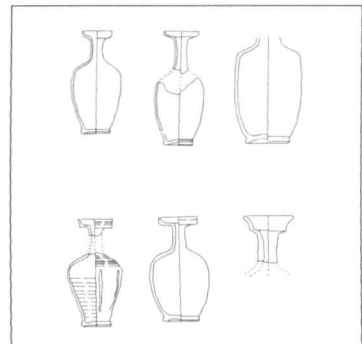
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기형이 고려에 와서 고려동기를 모방하여 새롭게 출현한 기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사실 고려동기에 장타원형의 동체를 가진 이와 동일한 형태의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동체가 筒形에 가깝고 높은 굽다리가 달린 반구병류는 고려 청동기를 모방하여 새롭게 출현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반구병은 진산리나 경서동 등의 녹청자요지에서 많이 생산되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유존례를 보아도 유면이 얼룩지고 갈색조의 전형적인 녹청자는 물론이고, 대체로 태토가 사립이 섞인 粗質이고 유약은 유층이 얇고 빙렬이 많으며 산화번조된 것 같이 어두운 녹갈색기를 띠고 있어 녹청자계통으로 분류된다. 간혹 양질의 태토에 淡靑色이나 온전한 청자색을 띤 것도 보이는데, 이런 류가 강진요 산품일 가능성이 많으나, 진산리에서도 양질의 청자류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

반구병은 녹청자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확실하며, 녹청자 자체의 기형이나 성형방법이 토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강진요의 청자반구병이 중국적인 자기 기술의 移入으로 인해 목과 몸을 따로 만들어 접합하는, 지극히 중국적인 성형방법으로 만들어졌고, 진산리요지의 녹청자반구병은 전통적인 토기 제작방식으로 목과 몸을 함께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다.³⁵⁾ 그러나 경서동의 경우에는 두가지 성형방법이 공존하고 있으며, 후술하겠지만, 중국 당대의 반구병에도 접합방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반구병의 성형방법상의 차이를 설명할 분명한 근거가 없다. 이런 차이가 시기적인 차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 역시 반구병의 전반적인 양상으로 보아 큰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녹청자류의 병이나 자배기·항아리등에 나타나는 조형적 감각이나 성형방법이 토기의 그것을 닮고 있음은 분명하며, 중국 월주요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강진요지의 청자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강진요지에서도 제작된 반구병의 경우는, 토기성형방식의 전승이라고 보고 있다.³⁶⁾ 따라서 고려전기의 청자반구병은 통일신라시대에 존재하였던 토기반구병의 전통을 계승한 기형으로 보는 것이 일단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나, 안압지출토의 인화문반구병류가 통일신라토기에서 별로 보이지 않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다.

청자반구병의 祖型문제 해결에 대한 참고자료로, 중국의 당대 황보요지에서 제작된 청자반구병의 존재를 소개하고자 한다.(삽도6, 도판 8-④) 황보요지의 청자반구병류에는 6가지의 형식이 있는데, 반구·장경에 타원형 동체와 낮게 벌어진 굽다리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어깨도 둥그스



삽도 6. 黃堡窯址의 靑磁盤口瓶 각종

35) 曹基正, 주6)의 책, p.82의 주56)의 내용 참조.

36) 반구병은 강진 용운리 9호나 高興 雲堡址 등의 초기청자요지에서 청자나 흑유자로 제작되었으며, 굽이 토기식의 불임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는 물론 기술의 계승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崔健, 「통일신라시대 경질도기의 전통계승과 중국 도자문화의 수용에 관하여」, 『韓國磁器發生에 관한 諸問題』, 한국고고미술 연구소, 1990, p.26.)

럼한 곡면의 것과 꺾인 것이 공존하나, 목과 동체를 따로 접합하였다는 설명은 없다. 동체 부가 瓜稜狀인 것도 보인다. 이 요지의 특징적인 장식수법인 黑釉刻花填白彩가 진산리요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일단 반구병의 존재도 함께 밝혀 두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반구병의 제작시기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먼저 강진요지의 경우, 반구 또는 반구병이 용운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계율리에서는 드물게 나온다. 특히 강진지역의 最古式청자를 생산한 용운리63호요지에서도 반구편이 보이지만 전체 기형을 확인할 수 없어 유감이며, 적어도 강진청자 II유형시기[한국형 해무리굽시기]에 성행한 것은 분명하고, III유형시기까지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녹청자계의 반구병이 많이 생산된 진산리의 경우는 활동시기에 관해 논란이 많지만, 강진요지 및 미륵사지 출토상황과 비교해 볼 때, 늦어도 10세기 후반에는 시작되었다고 보여져, 반구병도 이무렵에 번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제작시기의 下限은 강진의 III유형시기와 매월리고분 출토예로 보아 11세기 후반 무렵까지 잔존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2. 문양적 특징

이 반구병에 베풀어진 문양장식인 面陽刻蓮瓣文과 象嵌唐草文은 기형과 더불어 고려청자에서 古式의 특징을 갖고 있는 요소임으로 이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① 面陽刻蓮瓣文

상감당초문의 반구병에 베풀어진 연판문은 독특한 시문수법으로 이루어진, 고식의 연판문으로 인정되고 있다. 동체의 길면을 넓은 조각칼로 모각이하듯이 上下로 길게 깎아내고, 좁은 띠같은 공간을 남기고 다시 깎아내고 하는 방법을 계속하여, 남겨진 공간이 마치 주름모양으로 솟아오른 윤곽선을 돌출시킨 다음, 주름상부에 가는 음각선으로 연판의 윤곽을 잡아 연판문을 표현하였다. 모각이한 폭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으며, 상부의 弧形 음각선도 모각이된 면의 한개당 하나씩 둘러진 것도 있고, 한 弧線 내에 촘촘한 주름이 여러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 비록 반구가 특징이긴하나, 전체적으로 동체가 주름치마같이 보인다 하여 흔히 '치마병'이라 부른다.

이 연판문은 독특한 시문수법과 형태 때문에, 음각연판문·양각연판문·丸彫연판문·반양각연판문등 여러가지로 불리고 있다. 필자는 수법상 모각이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연판문의 윤곽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양각문의 일종으로 보며, 일반적인 양각문과 달리 이 시기에서만 독특하게 기면을 넓게 깎아 돌을 무늬를 만들었기 때문에 '面陽刻'이라 이름붙여 보았다.

연판문은 고려자기의 장식소재로 즐겨 사용되었는데, 대체로 전기까지는 주문양으로 사용되고, 12세기이후 비색청자류부터는 연판문대접에만 주문양으로 사용되고 대부분은 종속문양대로 시문된다. 11세기를 중심시기로 하여 주문양으로 널리 이용된 고식의 연판문에는

고식의 면양각연판문은, 고식의 삼각편이 발견된 합평 양재리청자요지군에서도 한·대립
문양연판문 보다 이른 시기에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전 III유형의 청자를 생산하던 요지들이다. 따라서 고식 연판문에서도 면양각연판문이 단층
18호·19호·20호·37호·43호·45호·49호 등에서 발견되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강
요지들이다. 한편, 단층회 음각선만으로 된 고식의 연판문이 용운리 62호와 계룡리의 8호·
호·37호·45호·52호등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강진 III유형의 청자가 생산된
호·53호요지 등에서 한·호류에 시문된 것이 보이며, 용운리 12호·26호·27호·33호·36
면양각으로 된 고식의 연판문은 강진요지의 경우, 반구별이 돌토되는 龍雲里 9호·50
백을 같이 하는 점으로 보아서도 끝명한 것 같다.

신중 문양으로 생각된다. 이는 중국에서도 이 무렵에 집중적으로 연판문이 시행하는 것과
양다가 감자기 고려자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중국의 원주요나 청요 등의 영향으로 생긴
서는 동일선라만 까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해무리문류의 청자나 백자에서도 전혀 보이지
우리아에서 연판문은 삼국·통일신라의 암막새기와문으로서는 크게 시행하지만, 토기에
미색계청자에 나타난다.

의 중심선이 불룩하나 두드러져 보인다. 이런 양각연판문은 고려자기에서는 구사문반침의
문은 정교하게 각은 양각문이 많은데, 연판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옆을 경사지게 깎아 판
에도 연판문이 주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런데 10~11세기의 중국도자에 나타나는 연판
이외 11세기로 추정되는 景德鎮窯의 청백자호·耀州窯의 청자완·龍泉窯의 반구별 등등
문대가 주속문양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도판 10-5⑥)

문양포치가 유사하여 주목된다. 이를 연판문이 장식된 기물에 주중 문자이나 양각의 단층
면이 있는 정병에는 장터원형의 동체에 긴축한 양각연판문이 둘러져 있어 고려 '자마병'과
정교하게 양각되며, 甌나 罈子에서 동체와 어깨 모두를 연판문으로 채운 것도 있다. 「합자
리 응용되어, 甌·罈·罈子·罈瓶 등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체로 2단의 엇갈린 연판문이
것도 보인다.(도판 10-2②~④) 양각의 연판문은 북송전기, 10~11세기전반의 定窯백자에 널
한 음각선만으로 간략하게 연판문을 배운 것도 있으며, 2층의 연판문을 정교하게 양각한
소련은 2~3층의 문이 파져 있어 고려의 면양각연판문과 유사성을 보인다. 이외에도 고려
행한다. 이 무렵의 원주요청자에 보이는 蓮瓣文碗의 경우, 문곽은 음각으로 잡고 내부에는 다
唐代에는 연판문이 별반 보이지 않다가 오대부터 북송전기에 걸친 10~11세기에 크게 유
다.(도판 10-1①)

으로 나타난 것도 보여 흥미로우며, 연판문과 함께 음각단조문대가 병용된 점도 주목할
수법으로 장식된다. 이 시기의 연판문 중에는 연판의 내부를 넓고 깊게 깎아 주름진 모양
의 용상과 더불어 불교적 문양인 연판문이 시행하여 古越窯 등에 음각·양각·부조 등의
다. 중국에서 도자기의 문양으로 연판문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남북조시대부터이다. 불교
이런 면양각수법의 특징적인 연판문의 조형은 아무래도 중국도자기에서 찾아야 할 것 같
고를 느낄 수 있다.

위와 같은 면양각수법으로 된 것이 많은데, 음각연판문의 경우도 선이 깊고 넓어 일견하여

류 등에 다양하게 시문되었으며, 영광 오동리청자요지에서도 치마병과 더불어 완·대접·개합뚜껑 등에 사용되었다.

면양각연판문이 장식된 청자류의 유존례는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蓋盒類에 많이 보이며, 오대와 북송전기의 기풍을 보이는 注子類에도 보인다. 주자의 경우, 동체에는 면양각연판문이 있고 어깨에는 철화당초문·음각당초문·상감당초문이 배풀어진 예도 있다. 그리고 昇州 桐華寺 삼층석탑에서 나온 사리구일괄 중에 면양각연판문이 장식된 蓋壺가 있는데, 羅末麗初로 편년을 하고 있어 이 문양의 사용시기 추정에 크게 도움을 준다.³⁷⁾ 또한 1009년에 조성된 영암군 星風寺 오층석탑에서 나온 靑磁蓋盒은, 이와 동형식의 청자개합에 시문된 면양각연판문의 연대추정에 참고가 된다.³⁸⁾

다음으로 면양각연판문의 발생과정과 제작시기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월주요나 정요 등에서는 10~11세기에 양각의 연판문장식이 크게 성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토기까지 이런 문양이 전혀 보이지 않고, 고려초기청자류에서 진술한 고식연판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일단 고려자기의 연판문은 중국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리고 碗·鉢類에 보이는 凹하게 패인 고식연판문과 동일한 형태가, 오대~북송전기의 월주요청자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주요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반구병류의 치마형 연판문 같이, 기물의 동체에 상하로 길게 양각된 연판문이 장식된 예는 정요에서 보인다. 다만 정요의 양각연판문은 연판을 정교하게 양각하여 모각이한 고려 것과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연판의 내부를 모각이하여 주름을 만드는 고식연판문의 특징적인 면양각수법은, 아마 통일신라 후기의 토기에 성행한 줄무늬 또는 덧띠무늬토기에서 나온 수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9세기전반~10세기후반경에 제작된 土器油瓶에 많이 등장하는 줄무늬·덧띠무늬는 동체에 상하로 길게 난 음각·양각문이 주름처럼 보이며, 주름의 간격도 촘촘한 것에서 넓은 것 까지 여러 종류가 있어, 문양의 형태나 시문부위등이 청자치마병과 상통하며, 전체적으로 양자는 외견상 동일한 장식효과를 보이고 있다.³⁹⁾ 따라서 연판문이란 소재는 분명 중국의 영향이지만 표현수법은 통일신라말기에 성행한 독특한 장식수법을 변용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고식의 면양각연판문이 제작된 시기는, 중국에서 연판문이 오대~북송전기에 성행한 점, 진산리 녹청자요지의 제작시기, 강진요지에서 II유형과 공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0~11세기중엽 정도로 추정된다.

② 象嵌唐草文

37) 國立中央博物館, 『佛舍利莊嚴』, 1991, 도판43.

38) 國立中央博物館, 주34)의 책, 도판 45.

39) 미륵사지 발굴조사를 근거로 하여 줄무늬·덧띠무늬의 편년을 9세기전반~10세기 후반으로 설정하고 있다. (崔孟植, 주10)의 글 참조.)

이 반구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어깨에 시문된 상감당초문이다. 흑선상감으로 베풀어진 당초문은, 고려자기에 흔히 보는 끊임없이 연결되는 당초문대의 문양과 달리, 절지형식의 單位文樣으로 문양과 문양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어깨의 3곳에 배치되어 있다. 이 중 2개는 二重의 상감선을 사용하여 짧은 줄기의 끝이 양쪽으로 둥글게 말린 형태인데, 말린 줄기의 바깥선이 톱니처럼 되어 있어 소위 雲唐草文 같이 보인다. 나머지 하나는 S자형 줄기에 엇갈려 짧게 굽은 가지가 달린 일반적인 당초문형태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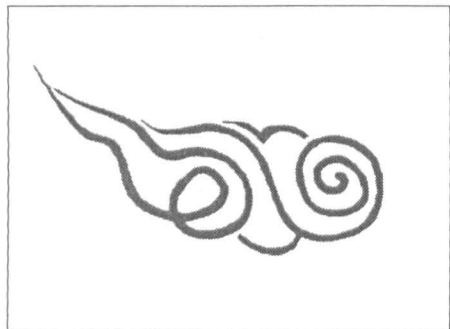
이렇게 종속문으로 사용된 절지당초문이 단위문양으로 베풀어진 것은 비색이나 상감청자류에는 보이지 않아, 이 또한 고식의 당초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런 단위당초문이 반구병이나 주자에 시문된 예들이 여러점 확인되고 있다. 이들에는, 동체가 무문인 일반적인 청자반구병의 어깨에 陰刻으로 단위당초문이 3곳에 배치된 것, 면양각연판문이 장식된 청자치마병의 어깨에 陰刻單位唐草文이 있는 것, 같은 치마병의 어깨에 복잡한 당초문이 음각으로 시문된 것, 역시 청자치마병의 어깨에 鐵砂顔料로 단위당초문이 그려진 것 등이 보인다. 또, 고식의 면양각연판문이 동체에 베풀어진 주자류 중에, 五代의 기형과 닮은 주자의 어깨에 울챙이같이 극히 간략한 鐵畫唐草文이 그려진 예, 多角形 注口가 달린 고식 주자의 어깨와 뚜껑에 陰刻의 단위당초문이 장식된 예가 있으며, 앞서 자료소개에서 본 것 같이 주자의 어깨에 象嵌法으로 시문된 예도 있다. (도판 11)

이와 같이 동일한 기형이나 동시기의 기물에, 유사한 형식의 단위당초문이 주로 어깨부분에 陰刻·鐵畫·象嵌法으로 시문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 음각·철화·상감법이 고려 전기의 비슷한 시기에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단위당초문이 고식의 면양각연판문과 함께 사용된 예가 많은 점도 유의할 사항이다.

중국에서 도자기문양으로 당초문이 사용되는 것은 南朝 5~6세기의 古越磁類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연판문과 함께 종속문으로 음각당초문이 사용된 예가 보이지만, 橫으로 길게 이어지는 일반적인 당초문의 형태를 하고 있다. 중국의 당대 도자기에는 일반적으로 문양을 베풀지 않지만, 앞서 본 황보요지에서는 백퇴화나 철화등의 수법으로 그려진 당초문이나 초화문장식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리고 중국자기의 문양장식은 대체로 五代부터 보편화되는데, 월주요나 정요등의 청자·백자에 다양한 문양이 나타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월주요청자에 사용된 음각당초문이다. 오대~북송전기의 월주요청자를 보면 畚이나 注子の 종속문으로 당초문이 즐겨 사용되는데, 주로 가는 음각선으로 절지당초문을 베풀 예가 많이 보인다. 특히 양쪽으로 벌어져 둥글게 말린 머리에 짧은 꼬리가 달린 듯한 단위문양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돌아가며 배치된 것이 많아, 고려자기의 고식당초문과의 유사성을



삼도 7. 도판12-④의 定窯 唐草文

충분히 느낄 수 있다.⁴⁰⁾(도판 12-①~③) 따라서 고려자기의 고식연판문과 더불어, 고식의 당초문도 중국의 오대~북송의 자기 문양, 특히 월주요청자나 정요백자(삼도7, 도판 12-④)

의 영향으로 발생되었으리라 믿어진다. 아울러 이 문양의 사용시기도 기형과 고식 연판문, 중국과의 관계 등으로 보아 11세기는 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V. '原상감문'의 발생 및 제작시기에 관한 고찰

지금까지 고려상감자기의 초기적 자료 중에 필자가 임의로 설정한 '原상감문'의 존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기형·공반 문양·요지의 성격등이 고식임이 분명한 예들을 소개하고, 중요자료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과 고찰을 하였지만, '原상감문'의 존재가 워낙 희미하여 이의 발생이나 영향관계·편년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얻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느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시기나 고려전기도자기의 성격규명과 편년 등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 현실에서, '原상감문'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조차 어쩌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도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되도록이면 편년과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히 필자의 의견만 밝히기로 하고, '原상감문'의 전반적인 성격규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만 강진계청자류와는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녹청자나 철화자기류의 성격에 대해, 나름대로 중국의 북방요지와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原상감문'의 발생과 중국 북방자기와의 관련성

'原상감문'의 자료를 정리해 보면, 우선 시문기법상 黑地白象嵌·鐵彩白土泥象嵌·黑面象嵌·黑線象嵌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용인 서리요지의 흑지백상감과 해남 진산리 요지의 철채백토니상감은 검은 바탕에 흰색의 문양을 감입하였다는 면에서 친연성이 강하고, 함평 양재리 청자요지의 넓은 면을 얇게 파고 자토를 얇게 상감한 흑면상감 또한 유사한 수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線象嵌類는 모두 흑상감으로 되어 있는데, 양재리에서는 면상감과 함께 사용되며, 기타 초기요지자료들에서는 단순히 한줄의 선만 둘러진 것이 많다. 면양각연판문이 사용된 고식 청자류에도 黑線象嵌으로 단위당초문이 시문된 예가 드물게 보인다.

이런 일련의 '原상감문'류의 선후관계를 따져볼 때, 아무래도 바탕을 赭土嵌入이나 鐵彩로 넓게 꾸민 종류가 先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흑색바탕면과 백색 문양의 시문기법상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일한 문양효과를 노리는 점으로 보아 양자간의 친연성이 강하고, 시기적으로도 서리요지의 경우 이들이 해무리굽시기층에 출토하며, 진산리에서도 녹청자류와 일찍부터 공반되고 있어 여타 '原상감문' 보다는 이른 시기에 나타났다고 믿어진다. 대체적인 흐름으로 보아 이런 류가 한국도자사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상감문의 형태가 아

40)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越州窯の青磁 II』, 1994.

중국북방의 가장 대표적인 요지로 환동한 이곳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요주요가 11세기의 고려자기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 앞선 시기에서도 북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요주요의 당·오대자기와 관련된 어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철화자기의 경우, 중국 남쪽지방의 廣州 西村窯의 영향을 많이 언급하지 않다. 다만 요주요의 唐·五代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이 시기의 영향에 대한 검토는 아니지만, 요주요청자가 11~12세기 고려도자의 발전에 영향이 많았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

여기서 또한 주의할 점은 고려자기와 耀州窯와의 관계이다. 문고에서는 상술한 임장이 양이, 진산리 등의 철채상감문과 일견하여 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대에 나타나는 '花窰'로 만든 장고라는 특징적인 기형과 흑유백상감이라는 새로운 문 철채백나상감법과 유사하여, 시기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인 이런 흑유마탕에 물을 파고 백토니를 붓으로 문혀 물을 배운 배운 일종의 백상감문은 진산리의 그러나 이 종류가 오대·송까지 계속되는지는 아직 보고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이렇듯 素胎黑花는 盛唐부터 나오지만, 黑釉刻花填白彩磁는 晚唐시기 (814~907년)에 나타난다. 그 刻花填白彩磁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황보요지에서는 黑釉는 初唐부터 이런 가능성을 두고 중국과의 영향관계를 생각할 때, 앞서 소개한 당대 황보요지의 黑釉 각된다.

공양효과를 내기 위해, 이와 같은 상감과 유사한 시문기법이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 것은 역시 중국의 영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후시 당대 형식의 장고가 들어오면서 동일한 이 장식된 자기를, '花窰' 또는 '花窰器'라 한다.⁴¹⁾ 이 장고라는 기형이 우리나라에 나타난 의 독특한 자기문로 제작되었는데, 흑유나 갈유 등의 진한 바탕 위에 月白色 등의 큰 斑點 고는 중국에서 唐(당)부터 나타나는데, '腰鼓'라 부른다. 이 요고는 소위, '花窰'라 부르는 당대 중한 마와 같이 대체로 이런 상감문이 시문된 기물은 장고부라는 점이 우선 주목된다. 장 여기서 철채백토나상감문의 발생문제를 중국자가 상황과 연결시켜 살펴 보고자 한다. 전 적인 흑백상감문으로 점차 발전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다음으로 양채린 등의 초기청자요지에 보이는 양은 흑면상감이나 간략한 선상감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단 흑선상감문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주류가 되어 고색 당조문 등 의 문격적인 상감문양이 나오게 되고, 이들이 점차 발전하여 초기 상감문으로, 그리고 진형

다 이런 것이 아닌가가 생각된다.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식의 초기해무리문양이 나오는 요지에서도 일찍부터 생산 되고, 같은 음에서 이미 백자흑선상감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관적으로 흑유자기가 은 것 같다. 왜냐하면 서리요지 것은 바탕과 백자간이 전형적인 상감수법으로 시문되어 있 단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 양자 간에도 철채백토나상감문이 빠르고 흑자백상감이 약간

말하자면 초기의 상황으로 보아 우리나라 자기의 초창기에 남방의 월주요 뿐만 아니라 당·오대의 邢窯白磁나 요주요청자 등의 북방자기의 영향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서리요지의 경우, 선해무리굽청자가 발생한 직후 백자가 생산된 점을 보더라도, 唐代의 일반적인 '南青北白'의 상황을 고려하면, 청자의 발생을 기반으로 곧 이어 북방요의 영향으로 백자가 생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초창기에 백자 뿐 아니라 북방자기의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믿어진다.⁴²⁾

북방자기와의 관련문제에 대해, 최근에 설정된 '중심요'와 '주변요'라는 개념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⁴³⁾, 월주요 영향이 분명한 강진계 청자요지 이외의 지역, 특히 진산리요지에서 토기전통을 바탕으로한 북방계청자를 생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마형태나 요도구등의 문제가 있지만, 특히 녹청자류의 제작은 단순한 질적인 문제만은 아닐것 같다. 진산리요지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요지군이 강진요의 영향을 받아 民窯의인 성격의 녹청자를 생산하였다는 것은 11세기 고려도자사의 전반적인 양상을 볼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필자가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주요나 주)18에서 언급한 臨汝窯에 관한 자료들이 우리 녹청자와 강한 친연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자의 유색이 暗綠色이거나 갈색기가 많은 점, 胎色이 회백이나 회청색계통이어서 환원번조로 된 점, 경사진 도지미를 사용한 점 등등은 녹청자의 특징과 부합되었다. 따라서 먼저 북방청자가 산화번조라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으며, 황보요지의 경우도 가마의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번조시에 橫焰과 半倒焰式을 함께 사용하였고, 연료도 나무를 사용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요주요의 초기청자를 '越瓷'라 부른 것이 이해된다. 이러한 요주요를 위시한 북방청자와의 친연성 때문에, 녹청자의 발생을 단순히 주변요의 상황으로 인식하여 양자의 관계를 시기적인 선후관계나 질적인 문제로 단정하기 보다는, 백자의 발생문제와 더불어 북방자기와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믿어진다.

지금으로서는 진산리요지를 포함한 녹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자기사의 초기부터 전개되는 양상이 越州窯系와 非越州窯系[녹청자와 철화자기류]로 크게 양분되는 점을 보아, 녹청자류의 발생문제는 매우 신중한 연구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의 지금 입장으로서, 녹청자는 토기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처음에는 당·오대의 북방청자의 영향으로 발생하여 이와 닮은 청자나 철화자기·흑유자등을 생산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 중심요의 영향으로 급속히 주변요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되며, 그렇지만 생산과정 자체는 앞서의 전통이 계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북방자기와의 관련문제는 특히 철화자기의 발생문제를 검토할 때 한층 가능성

42) 최근에 필자는 월주요청자로 유명한 절강성 余姚縣의 上林湖요지와 上虞縣의 窯寺前요지를 답사하여 唐·五代의 월주요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대규모의 퇴적층에는 청자편은 많았으나 철화나 백자편은 보지 못해, 이들이 일부 생산하였다하더라도 거의 예외적인 존재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일단 백자나 철화자기의 발생을 월주요와 관련짓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43) 강진, 부안 등의 청자의 조형을 주도하였던 '최상급 수준의 요'와 이를 모델로 한 '중·하급 수준의 요'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중심요', 후자를 '주변요'라 구분하고 있다.(崔健, 「鐵畫青磁의 特徵과 展開」, 『湖林博物館所藏品選集, 청자Ⅲ』, 호림박물관, 1996, p.124.)

이 커진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진산리요지에서는 다양한 철화문자기가 대량 생산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고려 철화문자기의 문제를 검토할 때, 먼저 유의할 사항은, 붓으로 그린다는 시문방법과 철화문류가 대체로 당초문이나 초화문류가 주종을 이룬다는 점이다. 붓으로 문양을 그려 자기를 장식하는 법은 일반적으로 중국도자사에서 元代 이후의 청화백자부터 유행한다. 그 이전에는 唐代의 黃堡窯, 湖南省의 長沙窯 정도가 대표적이고, 宋代에는 북방의 磁州窯 뿐이지만 자주요의 철화문은 12세기부터 출현한다. 그런데 고려자기에는 일찍부터 붓으로 그린 철화나 퇴화문이 성행하여 다소 이외의 양상을 보인다.⁴⁴⁾ 때문에 고려자기의 철화문은 '宋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단 '唐磁'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長沙窯는 문양이 새나 화훼등 회화적이거나 詩文을 쓴 것이 대부분이어서 고려철화자기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보지만, 황보요의 문양은 당초문이나 화관문·초화문등 디자인적인 문양이 대부분이다. 특히 황보요의 철채나 백퇴화로 그려진 당초문·초화문은 고려의 그것과 방불하며, 매우 장식적인 독특한 화관문도 고려철화문에 나타난다. 수법이나 문양으로 보아 황보요의 철화문류와 고려철화자기와는 매우 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우리 磁器史의 초창기에 중국북방의 영향, 특히 북방청자의 대표적인 요지인 황보요(요주요의 前身)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 황보요는 이후 요주요라 불리면서 11세기는 물론이고, 요주요가 '貢瓷'의 위치로 격상된 북송 神宗-徽宗年間(1078-1106)까지도 계속적으로 고려자기의 발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이 요주요는 고려도자사의 전반기에 월주요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된다.

중국 북방청자와의 영향관계의 가능성 때문에, 진산리의 철채백토니상감문도 황보요지의 영향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출현시기는 전술한 대로 아직 오대나 북송초의 보고서가 미간이어서 단정할 수 없지만, 만약 당대 이후에도 黑釉刻花填白彩磁가 계속되었다면, 녹청자나 초기청자류의 편년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연대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일단 '原상감문' 중의 철채백상감문의 발생이 중국 북방의 대표적인 요지 중의 하나인 황보요(唐代 혹은 五代)의 영향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2. '原상감문'자기의 제작시기

먼저, 鐵彩白土泥象嵌文의 발생시기는, 중국과의 관계로 볼 때, 대략 唐末~五代(9세기 후반~10세기 전반)로 생각되지만, 이와 같은 수법이 베풀어진 片이 출토된 진산리 17호의 경우는 제작시기를 10세기후반-11세기전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17호가 진산리요지군에서

44) 崔健, 주39)의 글에서 철화청자의 제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철화문청자의 유존례 중에 10세기전반까지 올려보는 것도 있다.

이런 고려도자 전반의 큰 흐름으로 보아 전형적인 상감자기의 발생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즉 11세기중엽까지 존재하던 전산리 등의 주변요가 강진요로 집중되면서 이때 기술적인 통합도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각지에 존재하던 기술과 세로공 등국의 영향 등을 繼承하여 강진요가 면모를 얻신하여 더욱 발전한 것으로 믿어지며, 이 성격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1세기의 어느 시기까지 고려도자에는 분명 '原상감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이들의 존재가 강진 등의 중심요가 아니라 농장자 등의 조철정자를 생산했던 주변요나 그 產品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일단 '原상감문'은 주변요에서 먼저 나타났던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고려전반기의 요지는 서남해안일대에 널리 분포하지만 대체로 11세기 중엽의 文宗(1046-1082)시기부터 康津과 扶安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거의 14세기 전반까지 고려자기는 강진과 부안요에서만 생산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문종때 이루어지는 강력한 중앙집권화 정책에 따라 이 무렵에 도자기의 생산도 일정 지역에 집중되어 가는 물제하여 자기가 생산된다는 뜻이며, 따라서 12세기 이후의 강진요나 부안요는 官窯의 인 성격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후 '原상감문'은 10~11세기로 추정하고 있는 기물이나 요지에서 교식의 상감문으로 나타난다. 양재리 등의 초기청자요지에서 본 것 같이 철체가 자토감입의 검은 바탕 없이, 몇은 면적을 흑상감하거나 흑선상감으로 문양의 윤곽을 잡는 등 보다 정리된 형태의 상감기법으로 나아가는 흐름이 보인다. 그리고 이를 청자요지에는 교식의 연판문이 장식된 청자기가 나오며 이런 교식 연판문청자에 역시 흑선상감으로 된 교식의 단위단조문이 나타난다. 반구별이나 주자에 보이는 교식의 흑상감단조문의 존재는, 동일한 기법에 동일한 형태 의 문양이 등각수법으로 시문된 예가 많은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상감법이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철체로서는 상감문이 극히 적고, 주변요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아, 주변요에서 먼저 발생한 상감기법의 영향으로 일부 만들어졌지만, 문정상의 까다로움이나 주변요자의 조철화로 따른 상감기법의 불필요함 등의 원인으로 거의 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중국 저주요의 경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지방의 민요적인 성격의 요지에서 상감시문법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10세기 후반~11세기초에 잠깐 소량 제작되다가 곧 사라져 버리는 이유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원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다만 용인 서리요지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강한 黑地白象紋文이 백자해무리문완류와 공반되고 있어 순수히 필자개인의 의견으로는, 시원적인 '原상감문'의 발생시기가 빠르면 9세기 후반, 늦어도 10세기전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原상감문'의 발생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가장 이를 형식의 것은 철체백토나 상감문으로 보이며, 중국 북방의 황보요지의 영향으로 9세기 후반~10세기전반경에는 발생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형식의 상감문이 용인 서리요지의 흑자백상감문이나 흑선상감문과 함께 12~13세기까지 전형적인 상감자기의 한 종류로 계속 제작되었다고 생각된

문고는 고려자기의 상감문의 발생에 대한 원고량이지만, '원상감문'의 존재를 알리고자 함이 보다 목적이다. 지금까지 극히 간헐적으로 보이는 특이한 형태의 조각기 상감문, 이 적은 발견례가 극히 전형적인 상감청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할 수 없지만, 이

VI. 맺음말

를 토대로 12세기들이 전형적인 黑白象嵌文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한다. 후 11세기중엽경에 갠진 등의 중심요로 집중되면서 이곳에서 初期象嵌文으로 전환되어 이 面象嵌과 黑線象嵌文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주변요에 존재하던 '원상감문'은 이 로 거의 동시기에 변형된 黑地白象嵌文과 黑線象嵌文이 나오며, 다시 초기청자요지에서 黑 르면 9세기후반, 늦어도 10세기경에 주변요에서 鐵彩白土泥象嵌文이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먼저 흑유·철화자기 등과 함께 중국의 북방자기의 영향으로 빼 여 고려하면, 발생에서 11세기중엽경까지로 추정된다.

'원상감문'의 제작시는, 앞서 검토한 면양각연판문의 존재, 고식의 흑상감 단위당초문의 존재, 고식 반구병의 제작시기 등과 함께, 중심요에서 초기상감문의 성립시기 등을 종합하 려자의 생각이다.

인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자, '원상감법'의 영향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는 것이 아니고 상감도 아닌 음각백토니문이 있어, 이런 것이 흑백상감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적 상감으로만 하고, 초기상감문도 대부분 흑상감인데, 이 때에는 흑상감되문대와 함께 퇴화도 인 상감문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시문방법이다. 그리고 '원상감문'류에서는 線象嵌일때는 흑 북에 문혀 살짝 바른 것이 백토화수법이나 철채백토니수법과 기본적으로 상동하며, 전형적 만, 표면을 살짝 긁어낸 듯하여 백토가 얇게 칠해진 면이 까칠까칠하여 특이하다. 백토를 문테를 백토로 살짝 칠해 회개 나타내었다. 이 회개 칠한 면을 보면 흙을 판 것은 아니지 것은 음각백토니문으로, 굵은 음각선의 鑿鈎法으로 문양의 윤곽선을 짙게 나타낸 다음 가 예이다. 굵다리는 통체시유한 뒤 접지면에 모래섞인 내화토를 굵게 빚어 반쳤다. 주목되는 의 피문대가 바닥근처에 들어가고, 문체에는 연화문으로 보이는 陰刻白土泥文이 배꽃어린 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도판 13) 갠진요 것으로 추정되는 매병의 저부편에 흑상감 초기상감문이 전형적인 흑백상감문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도 '원상감문'의 영향이 있

전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상감문은 이렇게 '원상감문'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이어서 전형적인 흑백상감문으로 발 문으로 발전해 나간 것으로 믿어진다. 11세기후반~12세기초로 추정되는 갠진청자계통의 文齣 등에 보이는 간략한 상감문이고 이런 초기상감문들이 12세기들이 전형적인 흑백상감 상감기들의 영향으로 11세기 후반경에는 갠진요에서도 상감문이 등장하는데, 이런 문가 隳 이때 상감법도 당연히 갠진요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주변요에서 이입된

희미한 존재들이 있음으로써 고려상감자기의 계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북방자기, 특히 당대의 황보요지를 포함한 요주요와의 영향관계가 중시되어 녹청자의 발생문제까지 언급하게 되었다.

12세기의 위대한 고려청자의 성립은 10~11세기의 다양한 모색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별로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찌보면 이 시기야말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우리나라 자기문화의 수준을 세계적인 것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기였다고 믿어진다. 토기를 바탕으로 한 자체적인 발전과 넘치도록 다양한 중국자기의 거의 모든 양상을 받아들여 이를 나름대로 소화하고 발전시킨 결과, 이 무렵에 적어도 도자기의 기술적인 면에서는 완벽한 이해를 갖추었다고 믿어지며, 이를 토대로 자신있고 독창적인 고도의 고려자기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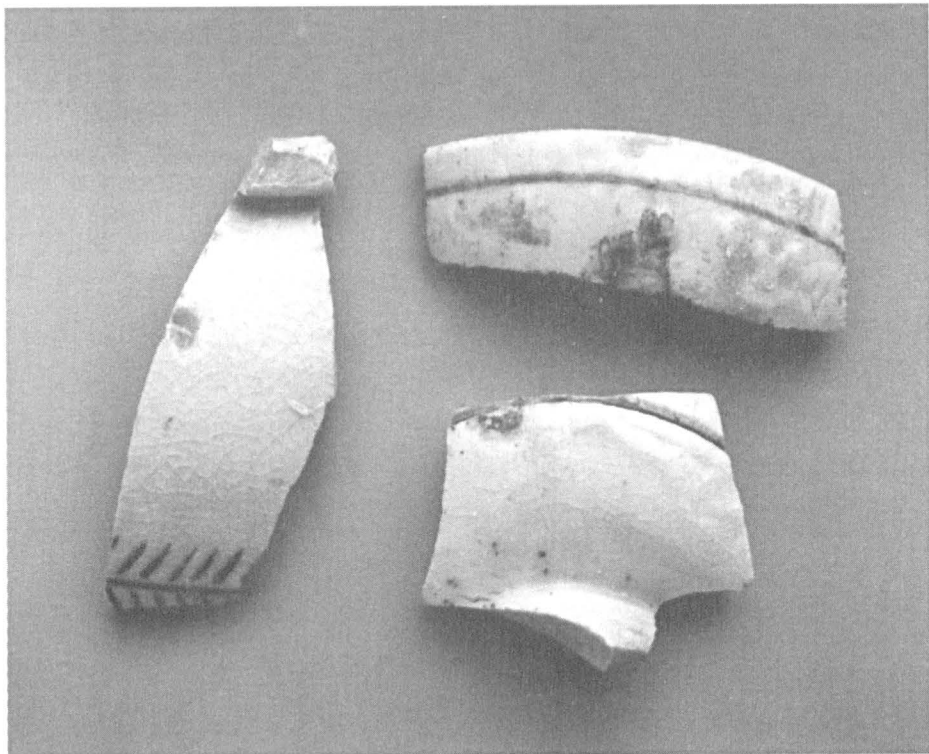
때문에 이 시기에 나타나는 제 양상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지금으로서는 자료의 부족과 필자의 연구태만으로 억측의 수준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드러내어 밝혀본다는 것만으로도 본고의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자위해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자문화가 토기에서 자기로의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데에는 그 자기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중국도자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도자사의 연구결과를 크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唐代後期에서 北宋까지 9~11세기의 중국도자의 발전양상에 대한 이해는 이 시기 우리 도자기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도 솔직한 현실이다.

본고에서도 중국측의 자료를 많이 인용하면서 '原상감문'의 존재를 그것과 연결시키고자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는 점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에 월주요 외에도 또다른 갈래인 중국의 북방자기의 영향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아직은 假定에 불과할 뿐이다. 다만 '原상감문'의 발생과 관련한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본다는 의미가 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본고 작성의 의의를 자료적인 수준으로 이해하고, 앞날의 연구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는 것으로 본고의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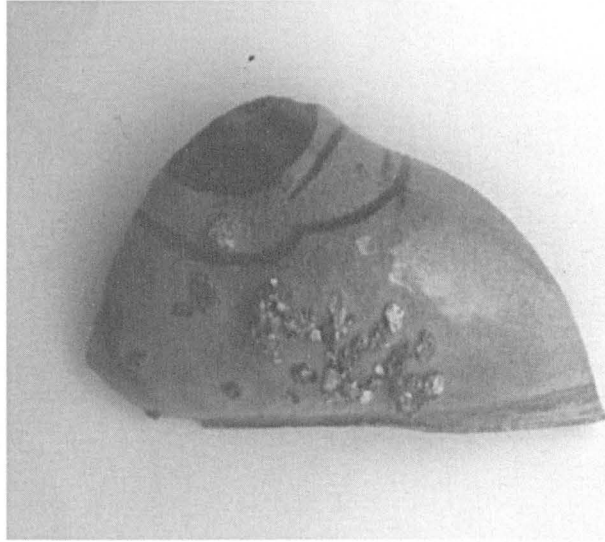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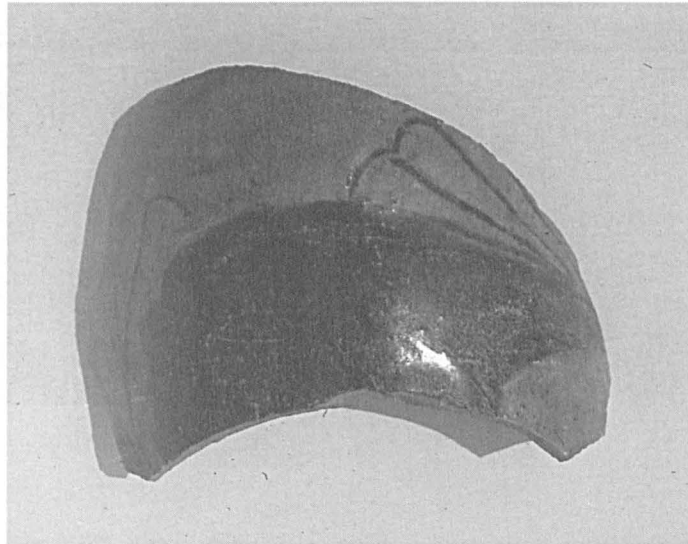
②

도판 1. 龍仁西里窯址出土 상감문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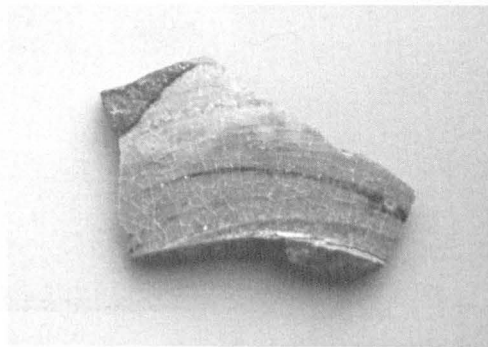
① 黑地白象嵌片 일괄 ② 白磁黑象嵌片 일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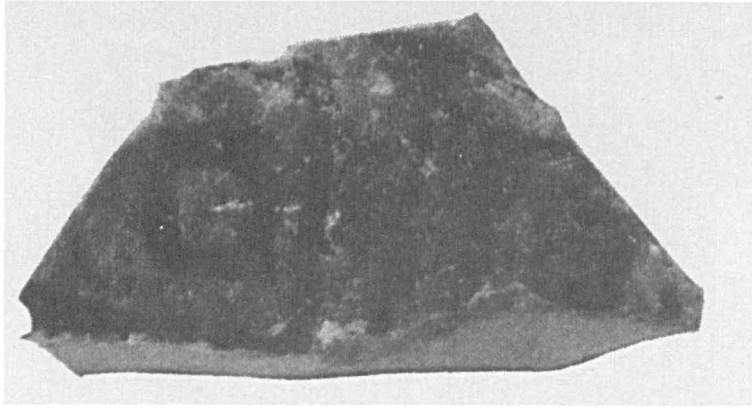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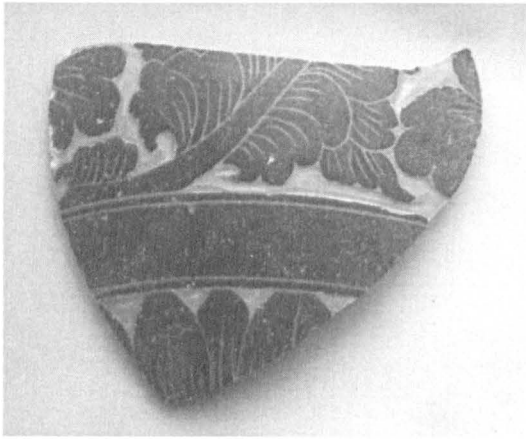
③

도판 2. 良才里·豊吉里窯址出土 상감문편

- ① 양재리1호요지 출토편
- ② 양재리5호요지 출토편
- ③ 풍길리요지 출토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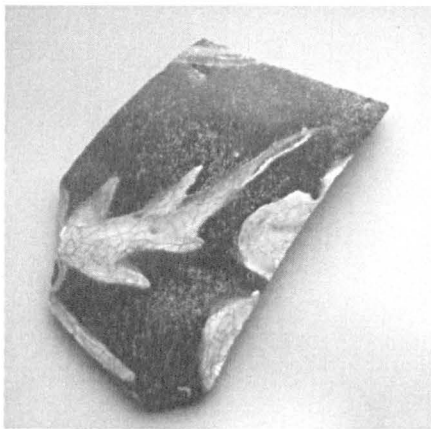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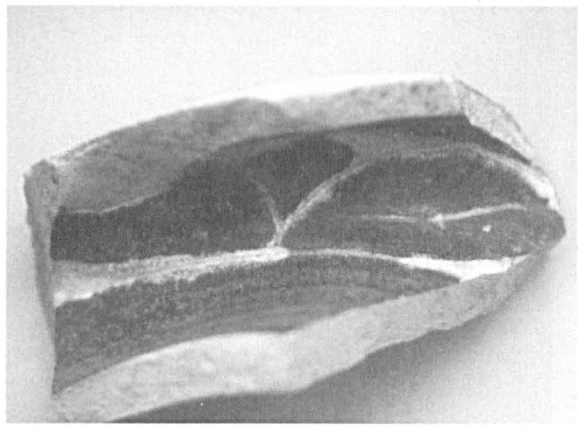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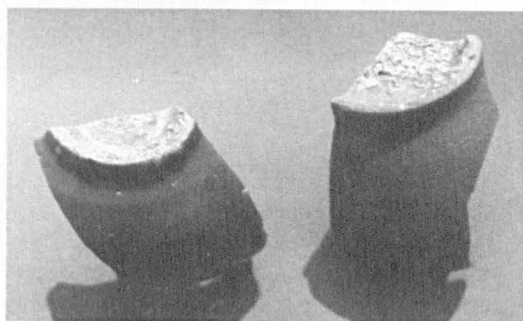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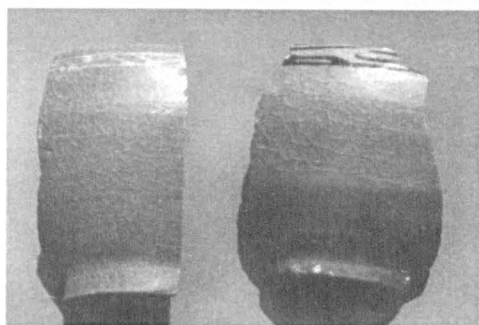
⑤

도판 3. 珍山里窯址出土片

- ① 黑象嵌文片 ② 鐵彩剝地陰刻文長鼓片 ③ 鐵彩剝地文片
 ④ 鐵彩白泥象嵌文片 ⑤ 鐵彩剝地白泥象嵌文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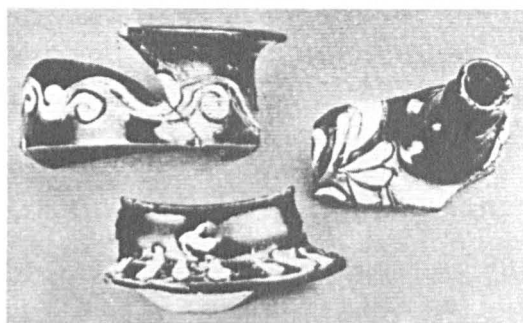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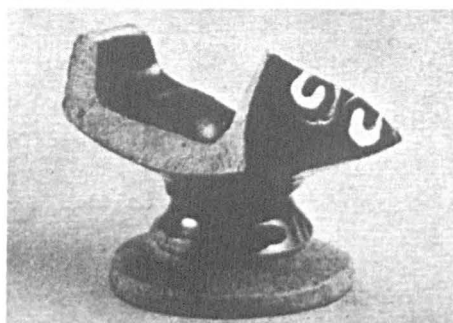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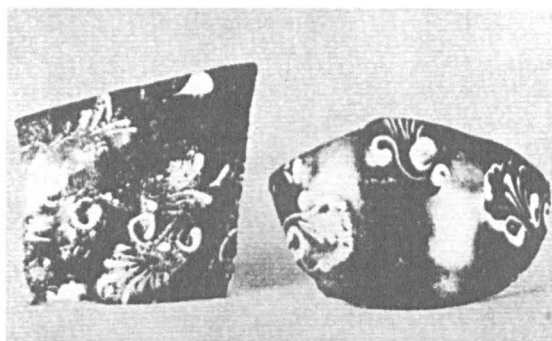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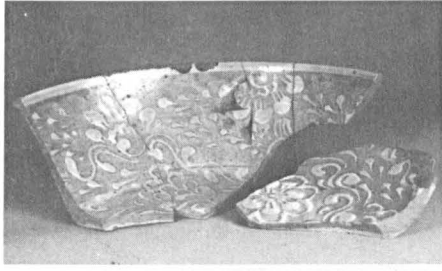
②

도판 4. '原상감문'·초기상감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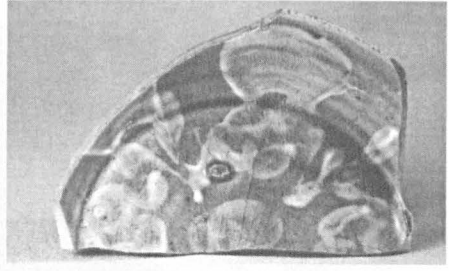
①青磁黑象嵌唐草文面取水注 ②青磁象嵌雷文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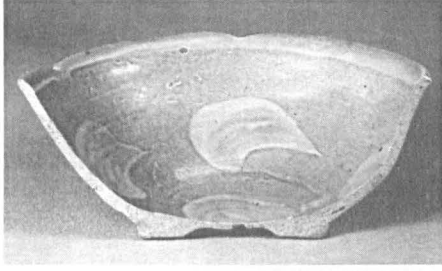
도판 5. 黄堡窯址出土 黑釉刻花填白彩磁片 各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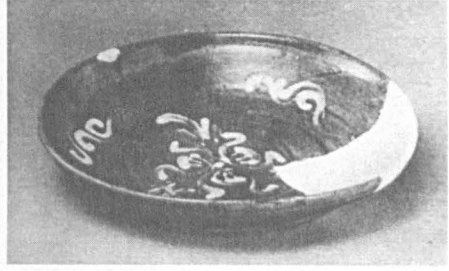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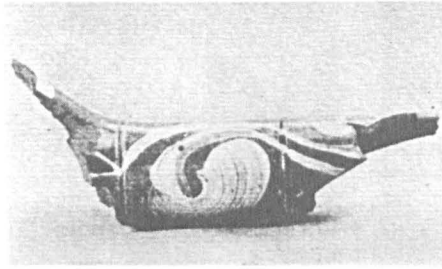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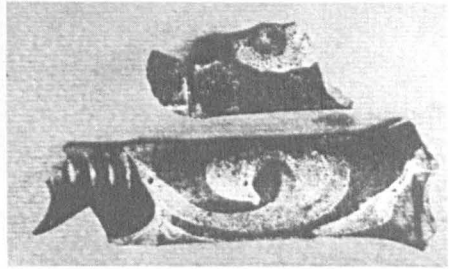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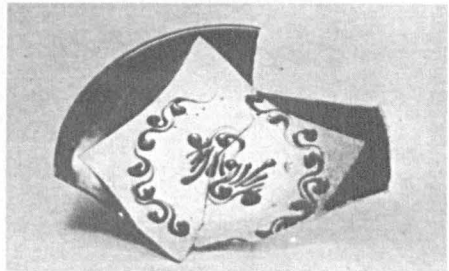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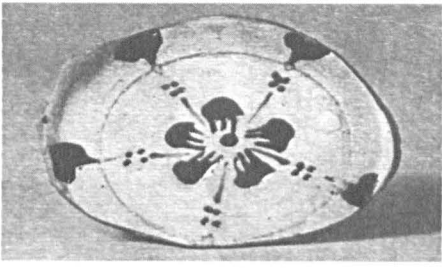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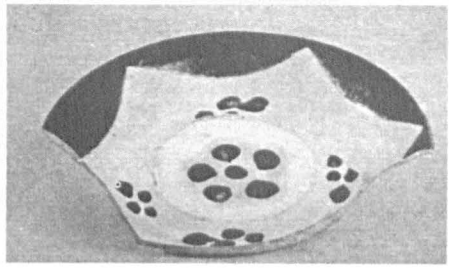
⑦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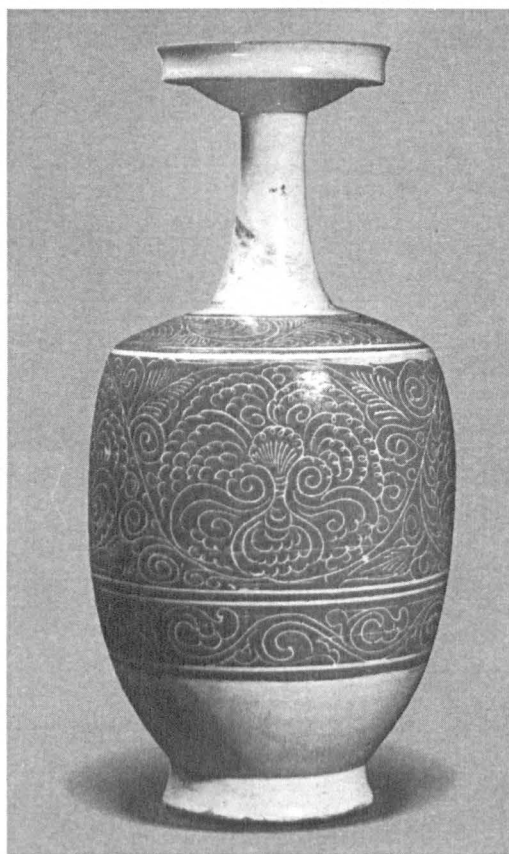
⑨



⑩

도판 6. 黄堡窯址出土 白彩·花釉·素胎黑花片

①~④白彩片, ⑤⑥花釉片, ⑦~⑩素胎黑花片



①白搔落象嵌唐草文長頸瓶,
10세기후반~11세기초, 高41.2cm,
클리브랜드미술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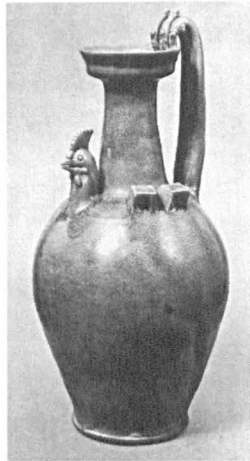
②白搔落唐草文枕
10세기말~11세기초, 長21.5cm, 시카고미술관소장

도판 7. 磁州窯의 상감문



①褐釉鍾

B.C.1세기~A.D.1세기, 高37.9cm,
大阪市立美術館 소장,
(『世界陶磁全集』10, 小學館, 도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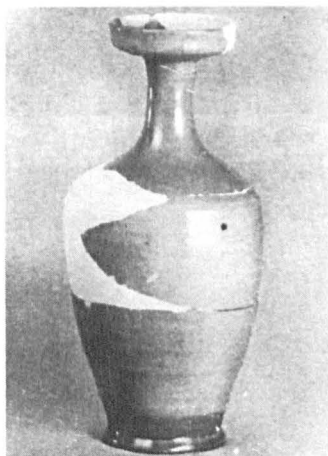
②青磁天鷄壺

南朝 5-6세기, 高47.4cm,
出光美術館 소장,
(①의 책, 도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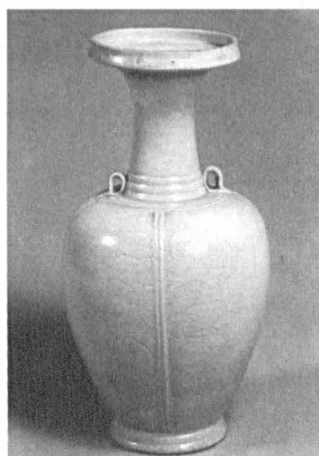
③三彩龍耳瓶

唐 8세기, 高47.4cm,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世界陶磁全集』11, 小學館, 도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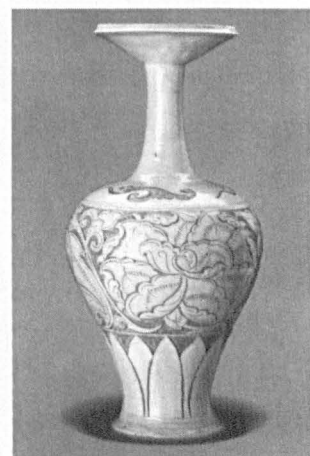
④青磁盤口瓶

唐, 黃堡窯址出土品,
(『唐代黃堡窯址』, 文物出版社,
도판31-3)



⑤青磁陰刻牡丹文瓶

10~11세기, 高30.5cm,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越州窯의 青磁 II』,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도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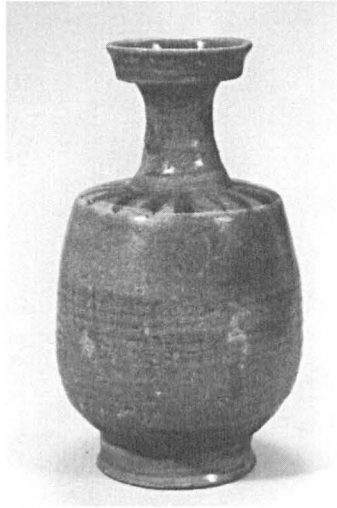
⑥白搔落牡丹唐草文長頸瓶

10세기 후반, 高42.8cm,
보스톤미술관 소장,
(『磁州窯』, 平凡社, 도3)

도판 8. 중국자기의 盤口瓶 각종



①土器長頸瓶
 통일신라후기, 高14.1cm,
 안압지출토, 국립경주박물관소장,
 (『토기』, 중앙일보, 도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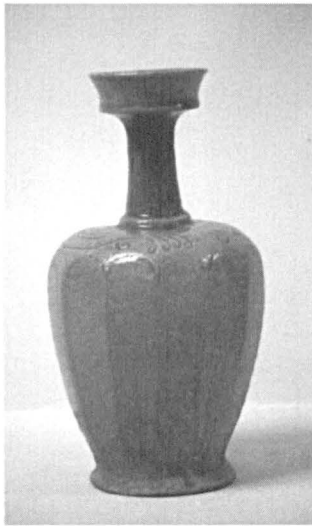
②靑磁鐵書文盤口瓶
 10세기, 高24.3cm, 호림박물관소장
 (『청자 III』, 호림박물관, 도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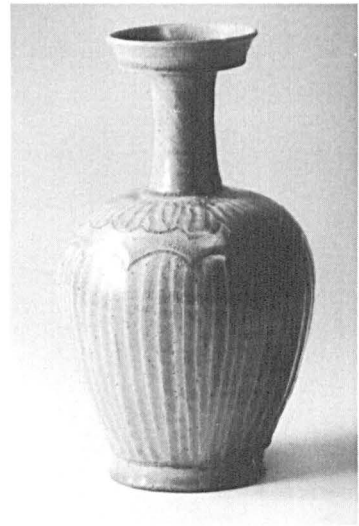
③靑磁鐵書文盤口瓶
 11세기후반, 高23.7cm, 호림박물관소장
 (②의 책, 도76)



④靑磁鐵書文盤口瓶
 11세기후반, 高27.1cm
 (②의 책, 도70)



⑤靑磁面陽刻蓮瓣文·
 陰刻唐草文盤口瓶
 11세기, 高20cm, 호암미술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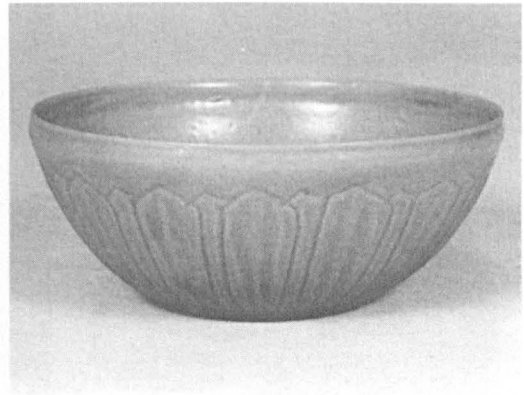


⑥靑磁面陽刻蓮瓣文盤口瓶
 11세기, 高27.0cm, 개인소장
 (『고미술특별전』,
 다보성고미술전시관, 1996, 도42)

도판 9. 토기·청자의 반구병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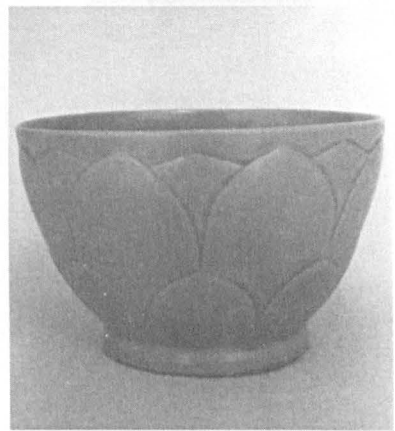
① 靑磁蓮瓣文樽
南齊 5세기 후반, 高35.5cm,
중국역사박물관 소장,
(『세계도자전집』 10, 소학관, 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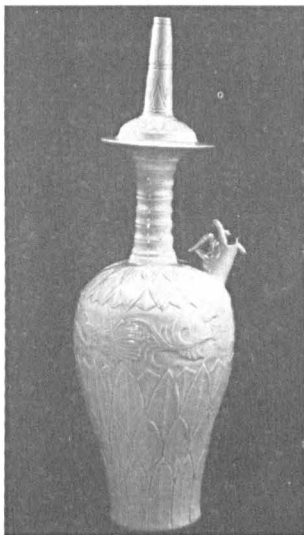
② 靑磁刻花蓮瓣文碗
10~11세기, 口徑15.0cm,
(『越州窯의靑磁』,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도44)



③ 靑磁刻花蓮瓣文碗
11세기, 口徑13.2cm,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②의 책, 도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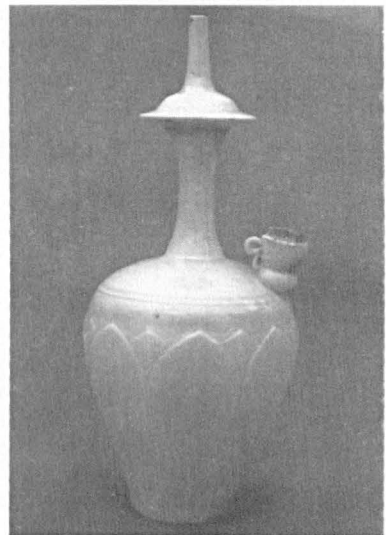


④ 靑磁刻花蓮花文碗
北宋, 口徑13.5cm, 蘇州市博物館,
(『越窯』, 上海人民美術出版社, 도182)



⑤ 白磁蓮瓣文淨瓶
10세기 후반, 高60.5cm,
定縣淨衆院塔基出土
(『세계도자전집』, 소학관, 도2)

⑥ 白磁‘官’銘蓮瓣文淨瓶
북송전기, 高31.0cm,
定縣博物館 소장
(『定窯』, 상해인민미술출판사,
도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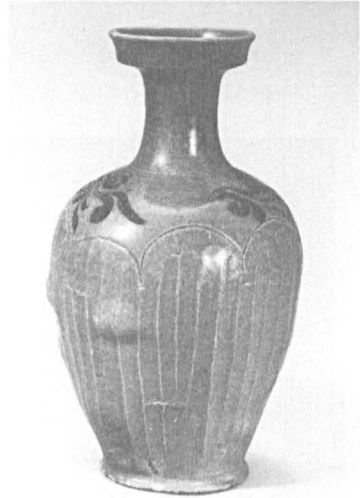
도판 10. 중국자기의 연판문 각종



① 靑磁陰刻唐草文盤口瓶
11세기, 高23.1cm, 호암미술관 소장



② 靑磁面陽刻蓮瓣文·
陰刻唐草文盤口瓶
11세기, 高26.0cm, 개인소장,
(『한국고미술사료전』,
한국고미술협회, 1996, p.63)



③ 靑磁面陽刻蓮瓣文·
鐵畫唐草文盤口瓶
11세기전반, 高25.5cm,
호림박물관 소장
(『청자Ⅲ』, 호림박물관, 도67)



④ 靑磁面陽刻蓮瓣文·
陰刻唐草文注子
11세기, 高24.6cm, 개인소장,
(『고미술특별전』,
다보성고미술전시관, 1996, 도49)

⑤ 靑磁面陽刻蓮瓣文·
鐵畫唐草文注子
11세기전반, 高22.8cm,
호림박물관 소장,
(③의 책, 도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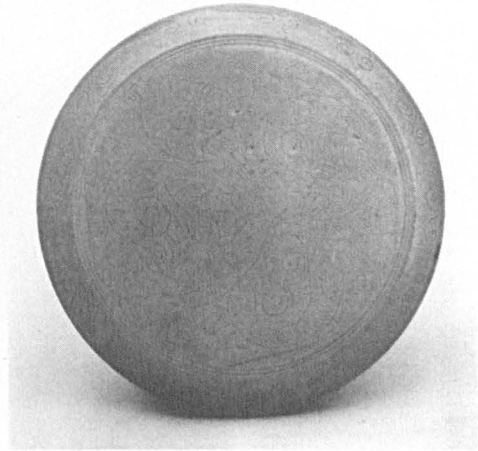
도판 11. 古式唐草文 각종



① 靑磁刻花蓮花文盒

10~11세기, 口徑1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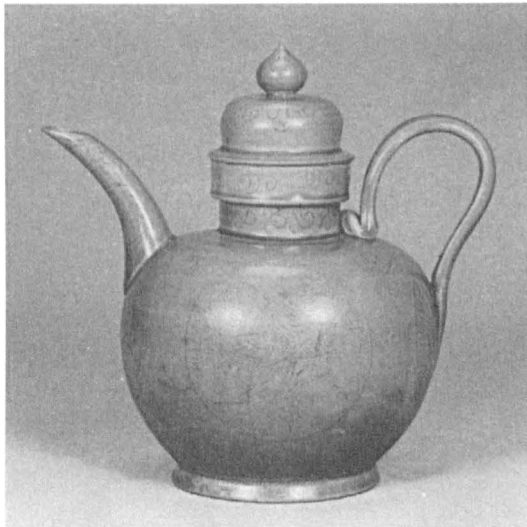
(『越州窯の靑磁Ⅱ』,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도48)



② 靑磁劃花蜂菊文盒

北宋, 口徑14.8cm, 海寧縣博物館 소장,

(『越窯』, 상해인민미술출판사, 도193)



③ 靑磁劃花鳳凰文注子

11세기, 高18.5cm,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소장

(①의 책, 도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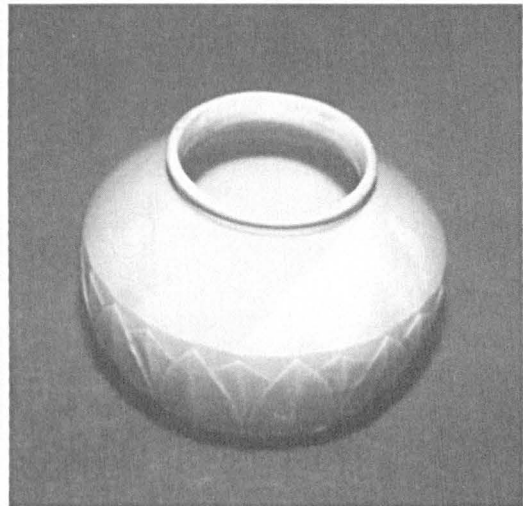
④ 白磁陽刻蓮瓣文·陰刻唐草文小壺

북송10세기, 高9.3cm,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東京國立博物館圖版目錄』

중국도자편1, 도343)



도판 12. 中國磁器의 唐草文 各種



도판 13. 靑磁象嵌雷文·陰刻白堆文梅瓶片

A Research on the Generation of the Inlaid Method of the Koryo Celadon

- Focusing on the Existence of the Proto Inlaid Design(原象嵌文)-

Kim Jae Yoel

Chief Curator, Ceramic history of art

This script is an approach to clarify the origin of the Inlaid Celadon. The general type of the Koryo Inlaid Celadon did become popular after the 12 century, but its origin has not been discovered and defined yet. However, recently pottery parts of the Inlaid Celadons are very rarely being excavated in the kilns of the early Koryo dynasty, and we have previously discovered, as is well known, the Inlaid Designs with the early-period characteristics and with the such reference, we have researched into the origination of the Inlaid Method.

In this script, using the excavated items and the relics on which the Inlaid Design of the 11 century, as the source of information, we will particularly define the style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general Inlaid Design and Design Method as the Proto-Inlaid Design. Let us present the existings which had been discovered in the past and review its originations and development process. Among the ones excavated in the grounds of the kilns, the ones that draw most attention are the White Porcelain Bowl with Donuts Foot(日暈), workshopped HeukJiBak-SangGamMoon(黑地白象嵌文)-made by first inlaiding black earth and reinlaiding white earth afterwards - from the Yougin Seori(龍仁西里) and the CheolChaeBaek-Toni Inlaid Design(鐵彩白土泥象嵌文)- made by using tarnish as the basis and scraping decorations and filling them in with white earth using a paint brush - of the Haenam Jinsanri(海南珍山里) kiln in which the Nok-Celadon is produced. The methods are identical to that of the early terms and seem to be at least 10 centuries ol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kilns, and therefore it was thoroughly looked into it. Among such, the CheolchaeBaekToni Inlaid Design is unique because it was made by inlaiding the white earth using a paint brush. A method which is similar to this can be found at the Hwangbu kilns(黃堡窯址) of the China Tang(唐) dynasty. In other words, the Design Method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HeukYooGakwhaJinBaekCheJa(黑釉刻花眞白彩磁) which was discovered recently in the kilns of the Tang(唐) dynasty(which, in China, is called the Hwangbu kiln) of the Yaozhou kiln(耀州窯), famous for the Northern Celadon. Thus we have tried to relate the generation of the Inlaid Design of the Jinsanri region to this. Also through reviewing the originations of the Nok-Celadon of the Jinsanri

and other regions, the Koryo Celadon with iron Design and the Koryo White Porcelain and by examining the relations with Northern kilns in China, we concluded that the Koryo Celadons origination was influenced not only by the southern Yuezhou kiln(越州窯) of China but also by the Northern kiln of China of the Tang(唐) and the Wu Dai(五代) era which is represented by the Yauzhou kiln (耀州窯). In conclusion, the 'Proto-Inlaid Design' originated first at the surrounding kilns of the Jinsanri and other regions(the local kilns other than the Kangjin), influenced by the Chinese Northern kiln of the Tang(唐) and the Wu Dai(五代) era and affected the Celadon kilns of the south-western coast until the mid 11 century and a small quantity of Inlaid Design mostly of Black Inlaid Design, was produced. Then around the mid 11 century, as the focus was being put on the Kangjin, the 'Proto-Inlaid Design' was also transferred to the Kangjin. On such foundations, the Inlaid Design of the early terms emerges around the late 11 century and gradually develops into the general Inlaid Celadons of the 12 century.